

해외공익활동 이슈 분석 보고서

시민의 삶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2023. 12.

문성근, 오연경, 정하운, 황금명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의 삶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해외공익활동 이슈 분석 보고서

글쓴이 문성근, 오연경, 정하윤, 황금명륜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seoulpa 2023-B-004)

2024년 3월 1일(온라인판)

발행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1층

대표전화 02-734-1109

메일 contact@seoulpa.kr

홈페이지 www.seoulpa.kr

출판 노닐다 www.nonylda.com 예림인쇄&바인딩 031-901-6495

표지 윤여정 배경이미지 미리캔버스 www.miricanvas.com

※ 이 책의 내용은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NC-ND(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례



7	1장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9	따름이가 삶의 질을 높인다고?
10	먼저 따름이를 소개합니다.
12	따름이 소동
14	서로 다른 진실
18	문제는 선택이야!
23	2장 미래의 삶 대비 사례 : 독일 노동 4.0
25	사회적 합의로 준비하는 미래
28	노동 4.0 사회적 대화 전개 과정
31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다
36	공개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적 대화 과정
42	연구와 조사
47	노동 4.0 백서와 새로운 대화의 출발
50	노동 4.0 사회적 대화 과정이 주는 시사점

차례



3장 젠더정의 확산 사례 : 이만시페이터	53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힘과 그에 대한 반발	55
전환의 남성성	57
네덜란드 시민단체 이만시페이터를 만나다.	58
우리는 함께이기에 분노와 증오가 아닌 자비와 사랑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68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고, 왜 함께 해야 하는가?	71
4장 삶의 질 개선 사례 : 영국 외로움부	73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75
영국 정부 차원의 외로움 대응 과정	76
외로움 대응을 위한 주체별 역할	84
외로움 관련 조직, 네트워크, 주요 활동 사례	90
연결되고 연대하며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되새기기	95

차례



97	5장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
99	시민사회 : 연대와 호혜의 공동체
101	공익활동 : 봉사하고 참여하고 대안을 만들고 저항하는
102	시민사회 단체; 결사체 민주주의
105	정부의 협치(거버넌스) : 광범위한 참여구조 설계와 지원
107	시민의 삶, 풍요로운 일상을 위하여
109	주석
	표 차례
85	[표 1] 외로움 대응을 위한 부문별 임무와 사례
88	[표 2]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행동
102	[표 3] 시민사회의 관계와 역할에 따른 유형분류 틀
	그림 차례
32	[그림 1] ‘노동 4.0’ 대화 프로세스
44	[그림 2] ‘노동 4.0에 대한 인식’ 연구결과
78	[그림 3] 시민사회 전략
100	[그림 4] 현대 사회의 세 영역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따름이가 삶의 질을 높인다고?

먼저 따름이를 소개합니다

따름이 소동

위기의 따름이?

따름이를 보는 다른 시선

서로 다른 진실

공공자전거의 역사

논점들

보이지 않거나 셈하지 못하는 것들

문제는 선택이야!

쟁점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오연경

헌법을 좋아하고 민주주의를 선호하며 옳음은 좋음에 우선한다고 믿는다. 민주시민 교육 활동을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 어찌 살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걱정이 태산이다. 출판을 업으로 삼고 싶었으나 고급 취미가 되어버린, 한량이자 N잡러다.

따릉이가 삶의 질을 높인다고?

서울 시민으로서 요즘 따릉이를 자주 탄다. 장년의 나이에 들어서자 건강상의 이런저런 경고를 받았다. 답답한 걸 싫어해서 실내에서 운동은 못하겠고, 물을 좋아해서 집 앞 도림천을 걷자니 관절이 아파왔다. 그때 따릉이가 눈에 들어왔다. 대중교통으로 환승하기 좋았고, 대여소가 많아 핑계 대기도 쉽다. 도림천 상류에서부터 한강으로 나가고, 한강에서 중랑천이나 안양천을 따라가 보는 자전거길은 눈맛이 시원해 가슴이 탁 트였다. 어느새 따릉이는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삶의 질을 2%쯤 올려준 것 같다. 물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그런 것은 아니다.

따릉이를 타면서 사람들은 웬만하면 “따릉” 종을 울리지 않는다. 그만큼 조심하고 배려한다는 게 느껴진다. 남을 추월하면서 “지나갈게요.”라는 말을 건넬 때, 미안함이나 조심하라는 걱정들이 전해진다. 우리가 줄을 서서 헤엄치거나, 왜가리인지 이름 모를 새가 유유히 날아오거나 한가로이 서있을 때, 물고기가 떼 지어 다니는 물속을 빠끔히 들여다보느라 한껏 기울인 아이의 한쪽 손을 잡고 바라보는 아버를 볼 때, 절로 웃음 짓게 된다.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한 손을 놓지 않고 걷고, 씩씩한 할머니가 짐자전거의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젊은 연인들은 천변을 바라보며 앉아 손을 포개고, 서넛의 동네친구들이 바둑을 두던 평상 뒤로 해질녘 동네 주민들 여럿이서 판스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넉넉해진다. 반년이 넘도록, 따릉이를 타면서는 화를 내지 않았다.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화내는 것을 못 봤다. 그리하여 따릉이를 타는 동안 만난 낯선 사람들을 다시 마주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친근하고 따뜻하게 느낀다. 어쩌다 넘어진 사람에게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어봤듯이, 나에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고 믿게 된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만난 동료시

민의 다른 얼굴은, 아니 어쩌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자전거길 바로 위로 난 인도를 걸을 때의 불안감이나 짜증이나 조급함 등이 자전거길에는 침범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이상한 현상은 무엇일까?

먼저 따릉이를 소개합니다.

서울시설공단 누리집을 보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렇게 소개한다.

(따릉이는) 서울시의 교통체증, 대기오염,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건강한 자전거 도시 :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실현
- 깨끗한 자전거 도시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향상시켜 CO2 발생 감소 실현
- 녹색성장 선도 도시 :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따릉이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풍문으로만 들었던 이상기후는 어느새 피부로 와닿았고, 이제는 기후재앙으로 불리는 위험을 내 생전에 이렇게 딱딱뜨리게 될 줄은 몰랐다. 아직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이 뿌린 재앙의 씨앗은 급속도로 자라 크나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미 지구 생물다수가 멸종하는 대멸종의 경고까지 내놓았고, 전 세계는 인류 생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세우고 협력하고 있다. 기존의 사상, 사회구조와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전과 다른 미래를 만들어야 할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

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한다.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복지, 민주정치가 서로 발맞추어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고(속) 성장'이 아닌 '적정 수준'이 키워드다. 이제 고성장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다. 인류가 창출한 부는 이미 모든 사람이 충분히 소비하고도 남을 만큼이지만 세계의 반은 굶주리고 있고,²⁾ 성장만 추구했던 인류의 삶은 다수를 불행하게 만들고 대재앙 앞에 섰다는 반성이다. 소득 몇 만 불이라는 기준 하나로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다. 그러니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삶의 질이 중요해진다. 삶의 질(How's Life?, OECD),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UN), 국민 삶의 질(한국) 등을 보면 소득, 고용, 주거, 복지 등 물질적 지표와 건강, 교육,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안전 등 비물질적 지표를 함께 측정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에서 비물질적 지표를 높이기 위한 정책 목표가 도입되어야 하는 거다.

다시 따릉이의 소개를 읽어보면 시민 건강, 탄소 저감, 교통체증 감소, 녹색 성장이란 단어들의 연관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정책으로 2030년까지 '아무런 감축 노력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37% 감축할 목표를 세웠고, 이에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자전거 정책을 도입했다.³⁾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탄소제로)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량을 상쇄할 만큼의 숲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 탄소배출량이 높은 기존의 교통수단을 전기차나 공공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 된다.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운동 부족인 도시인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따릉이를 공유경제⁴⁾ 유형 중 하나로 보아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 것 같다. 종합해보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따라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내가 느낀 느낌적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흡족한 목표다. 자, 따릉이가 동료시민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가설은 증명이 가능할까? 기대와 달리 제일 먼저 눈에 띈 정보는 필자를 놀라게 했다.

따릉이 소동

위기의 따릉이?

2023년 2월, 따릉이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짚는 한 기획기사가 눈에 띈다. 따릉이의 연간 적자가 100억 원을 넘자 서울시가 13년 만에 요금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런 단발성 대책으로는 적자개선이 어렵다고 한다.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공기업은 8곳이 줄었고,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공공자전거 사업을 접고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에게로 넘겼다면서, 따릉이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 대폭 인상, 광고부착 등 새로운 수익모델 도입, 이용자 수를 확대하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언급한다.⁵⁾

해외사례도 든다.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미국 뉴욕 공공자전거 시티바이크는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자전거를 재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덴마크 코펜하겐과 캐나다 몬트리올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다가 운영사가 파산신청을 했고, 설치비용을 민간 유치하거나 광고 수익을 올리며 운영을 민간 기업이 하는 형태인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역시 감당하기 어려워 비용 감축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전한다.⁶⁾

이에 기초하여 따릉이 개선 방안으로 요금인상, 운영비 감축(예를 들어 이용자 재배치), 새로운 수익 창출(따릉이 자전거와 대여소 등에 광고 수익이나 기업 후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전거 도로 확대와 대중교통과 연계(교통 소외지역사각지대 배치) 등을 제시한다.⁷⁾

“그런데 말입니다.”

따릉이를 보는 다른 시선

따릉이에 대한 다른 관점의 기사를 보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도 보인다. 2022년 4월 25일 기준 따릉이 누적 이용 건수는 1억 건을 돌파했다. 회원 수는 서울시민 3명 중 1명꼴인 350만 명이다. 누적 이동거리는 2억 7531만 Km으로 표준몸무게(65Kg) 기준 환산 시 운동효과 70억 8653만 Kcal, 누적 탄소저감량 1968t이다.⁸⁾ 시민건강 증진과 대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말이다. 2021년 5월, 따릉이가 혹시 없어질까 우려하는 기사⁹⁾ 따릉이가 2017년~2019년 3년 연속 서울시 우수 정책 1위로 시민들의 호응(90%가 넘는 만족도)을 받았고, 코로나 19 이후로는 비대면 교통수단이자 최초-최후 이동 수단(First-Last Mile Mobility)으로 각광받으며 이용률 24.6%로 급증한 정책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이용객 수가 늘면서 유지비가 58%나 감소한 100억 적자액은 공익에 기여한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자전거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 △민영화할 경우 결국 사용료가 올라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적자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공공복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을 조명한다.¹⁰⁾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따릉이 도입 후 처음으로 신규구매를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소셜미디어에서는 따릉이를 살리자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¹¹⁾ 이때 시민단체들의 성명서가 나왔다. △팬데믹 시기에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인 점, △전당 운영비가 917원에 불과하여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는 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환승수단이기도 하다는 점, △기후위기 대응 환경정책으로서도 사람·공유·환경 중심의 교통정책으로서도 가장 부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할 때가 아

나라 더 많이 공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또한 따릉이에 들어간 운영비는 다른 대중교통·녹색교통수단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이동권 보장, 교통복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예산지원이라고 한다. 오히려 따릉이의 탄소저감량을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천억 원에 이른다는 수치도 내놓는다. 이 성명서는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보행과 자전거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서울시도 전문가나 이용자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¹²⁾

한편 2022년 9월, 따릉이의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광고 입찰을 공고했다는 기사에서는 적자 개선에 크게 도움될 수준도 아닌데 광고를 유치하는 것이 공적인 이미지 훼손 등 득보다 실이 더 큰 것 아니냐는 반론이 실렸다.¹³⁾

서로 다른 진실

따릉이를 타는 걸로 기분이 좋아져 검색해보았을 뿐인데 못 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고, 아쉬워서 더 찾다 보니 오히려 미궁에 빠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맥락과 관점.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내는 무엇인지, 놓치는 것은 없는지—통찰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공공자전거의 역사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공공자전거 사업은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기 위해 시작됐다. 196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단체 프로보(Provo)는 모든 사람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없는 하얀색 자전거 50대를 배치했다(Witten fietsen plan). 이 사업은 대부분의 자전거가 도난당하거나 버려지는 바람에 한 달 정도 만에 끝났지만, 네덜란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1995년,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는 녹색교통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받아 잠금장치와 대여·반납대 시스템을 갖춰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하는 바이크 어바웃(Bikeabout Plan)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대여·반납대와 운영시간이 한정적이었고, 자전거 손상에 대한 비용 청구, 계절별 사용량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1998년에 중단됐다. 1994년, 미국 포틀랜드의 환경운동가 몇 명은 지역사회를 위해 여러 대의 자전거를 거리에 풀어 무제한 사용하도록 하는 노란 자전거(Yellow Bike Project)를 시작했지만 자전거 도난과 파손으로 지속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소외계층에게 직장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출퇴근용 중고자전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통근자 만들기(Create A Commuter, CAC) 사업으로 계승되었다. 199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환불되는 보증금을 쇼핑카트처럼 동전을 사용하여 잠금해제하고, 다른 자전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품으로 설계된 자전거를 도시 자전거 구역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뷔시큰(bycyklen, 도시 자전거)이 시작되었다. 반납하지 않거나 구역을 벗어나면 약 20만 원 이상의 벌금을 경찰이 집행했다. 이 대규모 공유사업은 자전거 광고 수익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코펜하겐 시가 인수한 후, 기업 기부와 시 자금으로 비용을 조달했다. 1998년, 프랑스 렌에서는 클리어 채널(Clear Chanel)사가 자기카드를 사용하는 벨로라카트(Velo a la carte)를 시작했고, 이후 광고회사 제이씨데코(JCDecaux)가 더 큰 규모의 자전거 공유사업을 비엔나(2003), 리옹(2005), 파리(2007)에서 시작했다. 파리의 벨리브(Vélib) 시스템은 세계의 관심을 끌었고, 2009년 캐나다 몬트리올 시가 빅시 프로젝트(BIXI project)를 시작하는 등 유럽·아시아·북남미 지역의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급격한 성장을 촉진했다. 2022년 현재, 전 세계 약 3000개 도시에서 자전거 공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¹⁴⁾

위키피디아의 긴 설명을 보자면, 앞에서 본 모든 쟁점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답은 없고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리로도 저리로도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어쨌든 따릉이는 어느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서 탄생했

다. 2009년, 서울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의 빅시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둘러보고, 1년여 서울의 상황에 맞는 공공자전거시스템을 개발했다. 2010년 10월말,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¹⁵⁾ 그 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며 개선하다가 2015년, 드디어 따릉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식으로 서울 시내를 누볐다.

논점들

보다 많은 관점을 제공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좋은 자료를 찾았다.

2019년, 고양시 공공자전거 피프틴 민간기업과의 협약 만료를 앞두고 공공자전거 정책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피프틴은 시설노후화에 따라 이용자 수는 감소되었고, 수익악화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양시 재정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다. 더구나 기존의 시스템은 많은 비용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단점 때문에 고양시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의 성장세도 주춤했다. 게다가 공유경제와 맞물려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공유자전거 시장을 확장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므로 피프틴의 (재무적) 실패를 딛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¹⁶⁾ 첫째, 민간기업이 전기자전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양시가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민간의 수준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와 스마트 모빌리티 확장에도 유연하게 대처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일반자전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 ▲자유로운 반납 위치에 따른 통행방해, 미관훼손을 단점으로 꼽았다(백주현 외 2명, 2019, 112~113쪽). 둘째, 일반자전거(지자체)와 전기자전거(민간기업)를 혼합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공자전거 이용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 △시민이 선호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정책적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장점으로, ▲수익성(민간기업)또는 공공성(지자체)을 우선하는 상반된 입장 차이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 ▲매년 고양시의

비용분담 방식과 일반자전거 비율에 대한 민간 기업과 협약 필요, ▲고양시 정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의 어려움을 단점으로 꼽았다(앞의 보고서, 2019, 114~115 쪽). 셋째, 무료 일반자전거(지자체)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 △신속한 대응, △이용자의 안정적 이용을 장점으로, ▲시민의식 부재에 따른 사유화·도난·교체주기 대폭 축소 등으로 인한 매몰비용 가능성, ▲서비스 질적 저하와 민원 발생 증가 가능성, ▲자전거 구입비용·유지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 우려, ▲수익성이 보이지 않아 민간기업의 참여나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의 확산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꼽았다(앞의 보고서, 115~116 쪽). 이듬해 고양시는 공공자전거 사업은 접고 민간 기업에게로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공공자전거 사업에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을, 따름이가 100 억의 적자를 낸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2020 년,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냈다. 여기서 처음 다루는 것은 서울시의 교통정책이다. 서울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대중교통, 보행과 자전거, 사람 중심의 인프라 공급과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목표로 하고, 11 개 중점과제 중 자전거 정책에는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 구축·안전 향상·공유 서비스 확대가 들어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전략으로써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 중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따름이를 확대하여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15%까지 높이는 목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자전거 예산, 자전거 도로, 따름이/자전거 이용, 보관시설, 전국 자전거 정책 평가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눈여겨 본 것은 따름이를 현재의 운영 수입으로 유지하기는 힘든 한계를 지적하면서도¹⁷⁾, 서울시의 자전거 정책 방향으로 따름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한 것이다. 이는 교통수단 별 역할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자동차 이용 억제와 자전거 공급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부합한다.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의 나라들이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해 꾸준히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여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온 점 또한 환기

시킨다(김광일, 2020, 15~19 쪽).

자꾸만 다른 관점들이 나타나고,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진다.

보이지 않거나 셈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 주목하지 않는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다. 따름이 이용자 350만 명 중 하나인 나의 삶의 질을 2% 올려준 것 같다는 주관적인 감상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까? 과연 따름이 정책으로 서울이 더 안전한 도시가 되고,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관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연결할 수 있을까? 아니, 천만 명 중 하나인 나의 의견은 대체 어떻게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 관련 정책 연구 중 하나로 보이는 보고서의 총론 한 구절은 어느 정도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사방이 막힌 주거구조, 폐쇄된 차동차공간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만남, 스킴, 교류가 잦은 동적인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¹⁸⁾

문제는 선택이야!

순진하게 따름이를 타는 것으로 흡족했던 마음은 너무나 많은 쟁점을 보면서 이제 머리가 아파온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은 알면 알수록 얽히고설켜서 때때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헷갈린다. 단순해 보였던 문제를 풀기란 복잡다단하여, 길 잃은 아이처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 게다가 너무나 다른 입장과 근거를 보면, 누구의 말에 힘을 실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쯤 되면, 따름이가 있기에 그저 탄 것뿐인 것처럼, 따름이가 없다면 그저 없는 대로 또 그

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기도 하겠다. 대체 나에게 묻지도 않는 걸, 왜 내가 이리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있어야 할까?

쟁점들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 보자. 따름이는 공공자전거다. 공공자전거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운동가(activist, 활동가)와 그 단체들이 먼저 시작했다. 처음부터 무공해 교통수단으로써 모두에게 이로운 목적(공익)을 위해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쓰였다. 그러나 공공재가 흔히 그러하듯이 공짜라고 도난·파손하는 양심 없는 사람들에 의해, 또 남는 것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버틸 힘이 없어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 목적과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단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시도되었고, 시장성을 보고 기업이 뛰어들기도 하고, 공공성을 보고 정부가 맡기도 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설치하고 유지할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 부담을 시장에 완전히 넘길지, 정부가 안고 갈 것인지, 분담할 것인지 등 결정이 필요해진다. 또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 등장했는데, 자동차 등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발굴·성장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간과할 수도 없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등장인물을 만났다. 사회운동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지방정부, 기업, 언론, 정책전문가, 그리고 시민 개인. 사실—이제는 알 수 있는데, 입장을 드러내든 그렇지 않든 모두 자기들의 입장이 있다. 아주 중립적일 것 같은 언론조차도. 그리고 제공된 정보들은 때로 가려져 있거나, 전체를 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거짓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진실들을 보여주는 식이다. 하여 옳고 그름이 아닌, 우선순위를 판별하거나 선택하는 문제가 될 터이다.

그렇다면 그 결정은 누가 해야 할까? 정부 관료? 시민단체든 연구자든 정책전문가? 사회운동가? 언론이 중요한 이유는 의제를 선정하거나 여론을 형성

할 수 있는 힘 때문이다. 그럼 언론에 맡겨야 할까? 따름이 이용자인 서울시민은 어떤가? 따름이 이용자가 아닌 서울시민은 어떤가? 과연 공익은 누가 가장 잘 알고, 누가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우선 평범한 사람들이 전문가보다 잘 알거나 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 후 컴브리아 주의 목양농들은 오염이 확장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과학자들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의 셸라필드 핵발전소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학자들과 경합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한다.¹⁹⁾ 1984년, 제초제—이러저러한 위험은 있지만 결국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 과학자가 증명하고 정부가 승인했을—때문에 120명이 죽은 트리니다드의 엔틸리즈 섬에 사는 한 농부는 ‘농약을 뿌리고 나서 아프다면, 농약을 충분히 뿌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올리버 벡, 2006, 86 쪽).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넘어간 것들이 뒤늦게야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보이지 않는 위험은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다. 기술적 선택의 능력이 커짐에 따라 그 결과의 계산 불가능성도 커진다(앞의 책, 57 쪽). 결국 경험을 한 뒤에야 알 수 있는 것들은 직접 겪은 사람들, 대개는 평범한 사람들의 판단이 더 현명할 것이다.

위험을 둘러싼 합리성 주장들이 빈번히 경쟁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위해 투쟁한다면(앞의 책, 69 쪽), 사회적-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성찰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아주 위험하거나 거대한 문제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을 얻는다. 코끼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

다. 어차피 각자의 퍼즐을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면, 다 같이 내놓아야 전체 그림을 알 수 있고, 아귀가 맞지 않는 퍼즐을 조금씩 깎는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르더라도 사회의 모든 주체들, 특히 기존에 배제되었던 그룹이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크다.

시민 개인의 참여와 함께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그룹의 참여는 강조될만하다.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에게서 받는 정보가 중요하고, 그 전문가 그룹 중에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공익을 우선시키는 원칙을 가진 시민사회 단체들이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관료, 언론, 기업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 흐름 속에서 반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현대사회의 공통적 특징이자,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따름이의 미래를 누가 결정해야 할까? 우리는 누군가—대체로 선출되거나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되겠지만—가 우리를 대신해 결정하는 것에 익숙하다. 대화의 과정은 마추친 모든 사람들—관료, 기업, 언론, 전문가 등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하겠지만, 결국 결정권은 누구 한 사람에게 줘야 하는 걸까? 아니면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걸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걸로 끝인가? 아니면 대화하는 동안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고,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

다행히도 우리는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회의 모습을 보고 선택의 폭을 넓히거나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와 공통된 이슈를 다루는 해외사례를 살펴 볼 차례다.

첫 번째 사례는 미래의 삶을 대비하는 독일의 ‘노동 4.0’이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한다는 뉴스가 넘쳐 당장에라도 일자리가 위협받는 건 아닌지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독일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누가 방향을 결정해야 할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긴 호흡으로 광범위하게 대화했다.

두 번째로는 젠더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시민단체 이만시페이터(Emancipator)를 만난다. 2016년 5월, “여자가 날 무시해서 죽었다”는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후에 젠더폭력에 대해 학습하기 시작한 청년여성들의 움직임은 페미니즘서적을 사회과학분야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전국의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에 젠더폭력예방교육 의무화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양시키는 데도 기여했지만, 성평등 이슈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미투운동(#MeToo)은 남성을 잠재적가해자로 보지 말라는 엉뚱한 불만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 상황과 맥락에서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움직임에 대한 반동이 일어났다. 예민하거나 과격한 상황들은 분노와 증오로 얼룩져 보인다. 서로 이야기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을까? 밥상머리에서 남자들이 먼저 젠더정의를 얘기하자라는 이만시페이터의 활동과 현황을 생생한 목소리로 듣는다.

세 번째는 삶의 질 개선 사례로 영국 외로움부를 본다. 가족이 있거나 없거나, 나이 들거나 어리거나 할 거 없이 우린 따로 떨어져 외로움만 사무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이 사적인 감정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사회적 문제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사소해 보이지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감정을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려 정부부처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본다.

지금까지 들었던 질문과 궁금증을 안고 다양한 사회의 대응 속에서 찾아낸 결론이 과연 필자들의 결론과 같을지 비교하는 재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의 삶 대비 사례 : 독일 노동 4.0



사회적 합의로 준비하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 누가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독일의 사회적 합의 문화
노동 4.0 사회적 대화 제안
개막 컨퍼런스 : 사회적 대화의 시작
녹서 : 미래의 노동을 그려가기 위한 질문
녹서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응답
공개 대화 : 미래영화제를 중심으로
전문 대화 : 일곱 차례의 연속 워크숍
노동 4.0에 대한 시민 인식 연구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북
노동 4.0 백서와 새로운 대화의 출발
노동 4.0 사회적 대화 과정이 주는 시사점

문성근

중학생 시절 대학생 사촌형 책장에 꽂혀있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전혜린)를 읽고 독일 유학을 꿈꿨다. 석사학위 논문도 독일을 주제로 썼지만, 결국 유학은 못 갔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정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참여 분야에서 활동했다.

사회적 합의로 준비하는 미래

미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누구에게는 기회의 문이고, 누구에게는 위험한 길이다. 그러하기에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현재의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하고, 누군가는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길에 적응하려 한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거대한 변화는 누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이 장에서는 정부가 기업, 노동자, 학계, 시민, 지자체 등과 함께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차원의 소통과 대화를 하고, 모인 의견을 종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독일의 ‘노동 4.0(Arbeiten 4.0)’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다.

불확실한 미래, 누가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현시대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산업혁명 4.0 일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적인 변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을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는 주로 기술, 산업, IT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직업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로 밀리고 있는 듯하다. 과연 미래에 양질의 좋은 일자리(노동)를 유지하고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려면,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이에 독일 정부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노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해진 답도, 주도권을 가진 세력도 없다,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답’이라는 자세로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았다. 다가올 미래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학습하며 대화하고, 논의하는 행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조류 속에서 공동체가 붕괴되어 각자도생하는 길이 아니라, 공고하고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임에 틀림없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된 ‘노동 4.0’ 사회적 대화 전 과정을 살펴보고,

각 과정에 담긴 고민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의 사회적 합의 문화 :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독일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는 2015년 4월 22일 ‘노동 4.0’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컨퍼런스(Auftakt Konferenz)에서 미래의 노동과 양질의 일자리 등에 대해 대사회적 질문을 던진 ‘노동 4.0 녹색(Grünbuch Abeiten 4.0)’²⁰⁾을 발표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사회 각계각층이 다양한 방식의 대화에 참여하고, 2016년 11월 2일 최종 컨퍼런스(Abschluss Konferenz)에서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정리한 ‘노동 4.0 백서(Weissbuch Abeiten 4.0)’를 발표했다. 약 1년 8개월간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의 대장정은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학습하며, 대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실행단계에서는 수용성, 정당성과 더불어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큰 효과가 있다. 이러한 문화는 이번 노동 4.0 탄생의 과정에서 갑자기 발현된 것이 아니라, 독일 사회의 오랜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선동과 광기의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 : 사회적 합의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파괴적 정치 선동과 이성을 잃은 대중의 광기가 남긴 처참한 결과를 경험했다. 인간성과 문명이 완전히 무너진 독일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안도 큰 과제였다. 한편 반인도적 행위를 한 국민, 전범국가의 국민이라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었다.

이들은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에 근거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한 질서,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사회 규범과 자유로운 사상과 문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또한 잘못된 역사에 대한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소통하고 합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했다.²¹⁾ 공동체를 중시하되, 공동선과 이성적 판단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는 시민을 모델로 삼았다. 이는 학교 교육 현장에도 적용되어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Politische Bildung)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1976년에는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사안은 교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재현하며, 다양한 주제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를 하게 된다. 이 합의 과정 역시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경제 영역에서도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 방식이 도입되었다. 일찍이 노동자(피고용인) 대표가 사용자 대표와 동등한 조건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1951년 '몬탄-공동결정법' 제정으로 광산·채굴업·철강산업 분야의 직원 1,000명 이상인 기업에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가 도입되었고, 이어 1976년에는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을 제정하여 광산·철강산업 외에 직원 2,000명 이상의 모든 대기업(협동조합 포함)에 대해 경영전략 결정권이나 이사회의 이사 결정권을 갖는 감독이사회(감독위원회, Aufsichtsrat)의 반수를 근로자 대표가 맡도록 했다.²²⁾ 한편 1952년에 제정된 사업장기본법에 따라 상근 노동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직장협의회(노동자평의회, Betriebsräte)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노사가 서로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의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토대를 쌓았다.

이러한 신뢰문화는 디지털시대에 들어서도 독일의 산업 생존을 위한 고민에 조응하여 발전한다. 먼저 디지털화의 참여, 공개, 개방, 공유라는 특성을 살려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는 게 과제였다. 이러한 공간은 개방형 의사소통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플랫폼 형성으로 이어지고, 이후 논의할 '산업 4.0(Industrie 4.0)²³⁾', '노동 4.0'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기반이 되었다.

노동 4.0 사회적 대화 전개 과정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이후 4차 산업혁명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논의의 핵심이 되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발명에 따른 기계 시스템, 2차는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 체계, 3차는 컴퓨터, 인터넷 발달에 따른 정보화로 대변된다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 노동유연화로 구분된다. 1차~3차 산업혁명은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명명된 것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진행되고 있거나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명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거나,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기반 형성과 광범위한 참여

제조업 중심의 독일은 주요 산업의 해외 이전과 미국 중심의 디지털 산업화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가 차원의 새로운 변화가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다. 슈뢰더 총리는 2003년에 사회경제혁신비전으로 <아젠다 2010>를 발표하고, 메르켈 총리는 이를 발전시켜 2006년에 국가미래전략으로 <첨단기술전략 2025>(Hightech-Strategie 2025)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준비한다. 이어 2010년에 보완, 개선된 <첨단기술전략 2020>을 선보였다.²⁴⁾ 2011년 1월, 헨닝 카거만(Henning Kagermann) 독일공학한림원 원장은 이 전략의 정보통신분야 실행계획으로 제조업에 ICT를 적용해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는 ‘산업 4.0’ 계획을 메르켈 총리에게 제안했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같은 해 4월 하노버에서 개최된 사무자동화·정보·통신 산업박람회(CeBIT)에서 그 개념과 내용을 발표하면서 ‘산업 4.0’이 공식화된다.

뒤이어 독일경제과학연구조합과 독일공학한림원은 1년 넘게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며 2012년 10월에 1차 권고안을, 2013년 4월에 최종보고서인 <미래프로젝트 산업 4.0 현실화방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이 방안에 따라

온라인 기반 대화형 의사소통 시스템인 <플랫폼 산업 4.0>이 설치되고, 정보통신미디어협회(BITKOM), 전기전자협회(ZVEI), 기계설비협회(VDMA) 주도로 300여 명의 연구자가 현장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연구한다. 그 결과 2015년 4월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기존의 산업계 중심의 플랫폼을 정치, 경제, 연구자, 노조, 협회 등으로 확대한 2차 <플랫폼 산업 4.0>²⁵⁾을 발족시키면서 연구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직업, 노동 환경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다. 이 공간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수시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피드백을 주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장기간의 준비와 소통으로 노동 4.0이라는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틀이 형성된다.

한편 산업의 변화는 노동, 직장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독일노조총연맹(DGB)과 산하 노조들은 산업 4.0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2012년 정부 차원의 연구팀이 구축되자 금속노조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면서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2015년 3월에는 연방 경제에너지부, 독일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산업의 미래를 위한 동맹(Bündnis Zukunft der Industrie)’ 공동선언을 하고, ‘산업의 미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 중심의 미래전략에서 디지털 시대의 노동의 변화, 좋은(양질의) 노동(Gute Arbeit)을 위한 노사정,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전개된다.

독서-대화-연구조사-백서 그리고 세 번의 컨퍼런스

산업 4.0 참여형 플랫폼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 전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디지털, AI, 네트워킹, 스마트팩토리 등과 접목된 산업의 변화가 노동, 일자리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산업의 변화는 교육,

사회복지, 법률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 삶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의 범위도 훨씬 넓어졌다. 독일연방노동사회부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 장관은 녹서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의 핵심은 노동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노동이 없는 산업은 생각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회적 대화를 전개했다.

개막 컨퍼런스, 녹서²⁶⁾ 발표

2015년 4월 22일, ‘노동을 계속 생각한다.(Arbeit weiter denken)’라는 표어를 내건 개막 컨퍼런스는 노동 4.0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다. 노동사회부 장관은 연설을 통해 노동 4.0을 향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녹서를 통해 함께 논의할 과제를 제시했다. 녹서에서 던진 질의에 대해 50개 이상의 협회, 시민단체, 기관, 연구소, 기업이 성명서, 의견서 형태로 입장을 전달하며 사회적 대화에 열기를 더했다.

공개 대화(Öffentlicher Dialog)

연방노동사회부는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홈페이지(www.arbeitenviernull.de)에 대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직접 참여할 기회 제공했는데, 홈페이지를 비롯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노동 4.0 관련 게시글이 4300건이나 올라왔다. 또한 시민들이 미래 사회의 문제를 보다 현실감 있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토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영화제(Futuale-Filmfestival)’를 25개 도시에서 개최하고, 175회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은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 타운홀 미팅 진행하기도 했으며, ‘Xing²⁷⁾ 새로운 일자리 세션(New Work Session)’ 일환으로 4개 패널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 4.0에 대한 인식’ 연구를 위해 15,000건의 온라인 테스트를 했다.

전문 대화(Fachlicher Dialog)

노동 4.0 을 주도면밀하게 접근하기 위해 연방노동사회부는 학계 및 실무 전문가 18 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7 회 연속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가장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자영업자들과의 대화도 진행했다. 노동 4.0 주관 부처인 연방노동사회부 이외에도 사법소비자보호부가 노동자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했으며, 경제에너지부도 공동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노동-사람, 조직, 기술’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연구와 조사

노동 4.0 에서 다루는 과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1,200 명 표본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노동 4.0 에 대한 인식’ 연구를 했다. 한편 사회적 대화 과정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워크북(총 4 권)²⁸⁾을 제공했으며, 노동시장 전망, 공동결정, 지속적인 직업 교육과 훈련, 클라우드 워크, 자영업, 노동 유연성 등의 이슈에 대한 20 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제공했다.

중간 컨퍼런스(Halbzeit Konferenz), 최종 컨퍼런스(Abschluss Konferenz) 및 백서²⁹⁾ 발표

사회적 대화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성격의 중간 컨퍼런스는 ‘백서를 향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2016.03.15), 안드레아 날레스 장관의 연설, ‘노동 4.0 에 대한 인식’ 연구 발표, 주요 쟁점에 대한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컨퍼런스에서는 백서가 발표되었다(2016.11.29.).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다

개막 컨퍼런스 : 사회적 대화의 시작

2015 년 4 월 22 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개막 컨퍼런스는 노동 4.0 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출발이었다. 300 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드레아 날레스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노



[그림 1] '노동 4.0' 대화 프로세스(<Weissbuch Arbeiten 4.0> 220-221쪽)

동 4.0-우리의 노동사회를 위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그는 디지털 혁명은 독일 사회에 긴급한 토론을 촉발하게 했으며, 디지털화는 이미 현실에서 떼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 미디어, 대중문화에 스며들었고, 이를 재구성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독일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강세인 제조업이나 고품질 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노동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산업 4.0은 새로운 기술 발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와 다양성 모두에서 미래의 노동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래에 대한 논의는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 높은 수준의 고용과 노동 참여 보장, 노동자들의 변화된 선호 수용, 생애 단계 접근방식을 담은 정책 개발, 공정한 임금과 사회보장의 지속적 보장,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지원'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질문을 제기하며 공동의 답을 찾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계, 실무자, 사회적 파트너 및 시민사회가 대화 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재차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협의가 가장 핵심적인 방안을 강조했다(<Grünbuch> 6-9 쪽).

녹서 : 미래의 노동을 그려가기 위한 질문

녹서는 ‘노동 4.0’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노동을 관찰하고, 기업과 노동자, 사회적 파트너, 정책 결정자들과 향후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는지, 발전을 위해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으로 시작된다. 또한 정부는 설명과 분석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제시했지만 정해진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자고 제안한다.

녹서는 ‘1 장 진화하는 우리 사회 : 추세 및 시나리오, 2 장 노동 4.0 : 노동의 재구성, 3 장 과제 : 영역 및 주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아래에서는 녹서 3 장 중에서 사회적 참여를 다룬 부분(3.6 장)을 간략히 요약, 정리해서 살펴본다 (<Grünbuch> 68-70 쪽).

연대, 참여 및 공동결정은 좋은 기업 문화의 핵심 원칙이다. 독일에서 공동결정과 경제적 성공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직장협의회가 존재하는 직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더 높고, 더 혁신적이며 성별 임금 격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결정(Mitbestimmung)은 ‘건강한 기업’의 토대가 된다. 공동결정은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수용도를 보인다. 이는 특히 직장협의회 선거의 높은 투표율(약 80%)에서도 나타난다.

시간, 장소의 노동 유연성 추세(모바일 근무나 재택근무 등)에 따라 관련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동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공동결정에 관한 규정은 자영업자, 계약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여 기회는 회사의 다양한 직종, 부문 및 규모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직원들의 변화된 선호, 젊은 세대 직원들의 변화된 선호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안 진단 속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던지고,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한 대화를 제안한다(<Grünbuch> 71 쪽).

- 직원의 기대·역량과 기업이 직면한 과제가 동일하게 고려되도록 직원의 참여를 설계할 수 있을까?
- 민주적 참여(Demokratischen Teilhabe)³⁰⁾와 서로 다른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공동결정은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향후 변화된 노동 세계에는 어떤 도전들이 나타날 것인가?
- 업무 장소와 시간에 대한 경계의 붕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존중하면서도,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자격, 시간, 훈련,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유연성 절충안은 어떤 모습일까? 회사에 혁신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근로 조건은 무엇일까?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제 문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녹서는 앞으로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를 묻고, 노동자, 시민, 사회적 파트너, 회사, 협회, 교육 기관, 국가 기관, 그리고 특히 정책 입안자 등 어떤 누구도 이를 결정하는데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결국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는 그것이 좋은 합의, 사회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합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서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응답

2015년 4월, 노동 4.0 대화 과정이 시작될 때 당시 안드레아 날레스 장관은 협회, 기관 및 기업을 초대하여 직업 세계의 미래에 대한 담론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녹서에서 공식화된 주요 질문에 대해 논평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50개가 넘는 노조, 기업, 협회, 기관 등이 질문에 대한 성명서, 의견서를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계, 변호사, 공무원, 정당, 지방의회 등 광범위한

조직들이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적 대화에 관심을 표명했다³¹⁾.

독일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단체인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은 성명서 <노동 4.0 :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Der Mensch im Mittelpunkt)³²⁾를 발표하고, 녹서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연맹은 ‘산업 4.0에 대한 논의에서 좋은 근로 조건의 조성이라는 핵심 문제가 간과’되어 왔다는 평가는 옳은 지적이라고 하면서, 녹서에서 고용과 직원(노동자)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점을 환영했다. 한편 디지털화로 인해 비정형적이고 불안정한 고용 관계가 증가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알고리즘, 스마트 기계,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아가 ‘좋은 노동’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파트너십 솔루션임을 강조했다. 공동결정은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결속을 위한 성공 요인이지만, 녹서에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공동결정권 확장 프로세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며, 직장협회의 공동결정권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독일산업협회(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BDI)는 디지털화는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³³⁾. 또한 직원들이 디지털화와 이에 따른 업무 세계의 격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자, 직원들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과 추가 훈련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포괄적 일반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기업과 단체교섭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킹 추세를 고려할 때 임시직, 서비스직 계약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무리하게 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적 대화의 주요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연방고용주협회(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Arbeitgeberverbände, BDA)는 성명서 <노동세계 4.0 : 당면 과제

해결하고, 기회를 잡자>(Chancen nutzen, Herausforderungen meistern)를³⁴⁾ 발표했다. 이들은 연방노동사회부의 사회적 대화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수많은 과제의 대부분이 직원(노동자)의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요구사항, 시장 변화, 고객 행동 및 경쟁력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 4.0 이 성공하려면 직원의 요구와 기업의 관심사가 균형을 유지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 및 직업 세계의 디지털화는 차별성, 유연성 및 전문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칙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치 않라며 산업과 기업의 특정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광범위한 국가 규제, 새로운 관료적 개입, 단체교섭 자율성에 대한 정치적 개입, 이에 따른 단체교섭 정책은 단체교섭 파트너의 활동 영역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성명을 발표한 대다수 조직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 제안에 찬성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갈등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기업, 노동자 등 각계의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하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강한 주장도 했다. 하지만 대화의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이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개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적 대화 과정

공개 대화 : ‘미래영화제’를 중심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방노동사회부는 노동 4.0 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면서 홈페이지에 대화 과정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SNS, 타운홀 미팅, 온라인 테스트, 영화제 등 시민들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와 토론의 장을 제공했다. 이 중 일반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미래사회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획한 ‘미래영화제’(Futurale-Filmfestival Arbeiten 4.0)’를 중심으로 공개대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5년 11월 5일, 연방노동사회부는 대중이 노동의 미래에 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를 주제로 한 영화제를 시작했다. ‘현대의 로봇과 유목민에 대하여 - 노동의 미래를 알아봅시다.’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 영화제의 목표는 노동의 미래에 관한 대화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7개의 영화(다큐멘터리)로 구성된 이 영화제는 1년 동안 전국 25개 도시에서 열렸다. 연방노동사회부는 최신 영화나 독일 영화관에 당시 상영되지 않은 영화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으며, 노동과 직업 세계의 현재와 미래 과제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충분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각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이 관객과 토론하고 질문에 답변하거나, 지역 발전과 디지털 변화의 기회와 위험에 대해 보고하는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총 750회 진행된 토론회에는 350여명의 전문가³⁵⁾와 8,000여명의 시민 관객이 참여했다. 전체 영화 상영시간은 102,388분으로 기록되었다.

연방노동사회부는 토론회에 따라 피드백이 매우 달랐다고 설명했다. 도시나 상영작에 따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관객 수는 달랐지만, 이는 토론의 질이나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토론은 극장 운영자가 영화관을 닫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어떤 토론은 3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은 영화를 실제 상영한 극장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영화제 웹사이트나 트위터(#Futurale)에서도 전개되었는데, 많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상영된 영화는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 영화제 섹터³⁶⁾와 영화를 상영했던 마인츠(Mainz)에 소재한 CineMayence 극장에서 제공한 영화 소개자료³⁷⁾를 토대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실리콘 와디(Silicon Wadi) : 아이디어에서 스타트업까지

이스라엘 다큐멘터리 영화로 텔아비브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과 청년 사업가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이는 노동 4.0 을 형성하고 업무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혁신 뒤에 숨겨진 도전과 노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프린트 더 레전드(Print the Legend) : 미래도 복사가 될까?

3D 프린팅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려는 기업들의 경쟁을 다룬다. 이는 미래의 잠재적인 작업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며, 기업문화와 기술 혁신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나는 엘리스다(Ik ben Alice)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해답은 로봇인가?

돌봄 로봇이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탐구하고 대안을 찾는다. 이 영화는 결국 노년층을 위한 미래 준비의 필수 요소는 보살핌, 즐거움, 의사소통, 학습이라는 대답을 제시한다.

디지털 유목민, 독일을 떠나고 있다(Digitale Nomaden-Deutschland zieht aus) : 무제한의 자유, 무제한의 접근성?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삶과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고, 기술의 발전과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유목민들의 자유로운 영혼의 세계를 살펴본다. 이러한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 관객들에게도 가능한지 생각하게 한다.

당신의 일, 당신의 삶!(Deine Arbeit, Dein Leben!) : 나는 일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일을 통한 정체성은?

2014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기록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 노동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한다.

나의 멋진 직장(Le Bonheur au travail) : 멋지고 새로운 직장

경제위기가 세계 노동시장을 강타한 암울한 분위기에 저항하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는 기업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직원 요구와 회사의 과제가 동등하게 고려되는 방식으로 직원의 참여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구독해주세요(Please Subscribe) : 소파에서 돈 버는 꿈을 꾸고 있나? 유튜브가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유튜브 표준을 만든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제작자들의 삶을 조명한다. 이 영화는 완전히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탄생을 기록함으로써 노동 4.0에 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넷츠필로텐 매거진(Netzpiloten Magazin)의 마리넬라 포터(Marinela Potor) 기사는 영화제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주제가 영화제를 통해 관객에게 훨씬 더 쉽게 접근하게 되었는지 관찰하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는 관객의 이목을 끈 이슈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현대 기술을 통해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과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한다. 한편 연방노동사회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토론의 내용이나 집중도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토론의 큰 잠재력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³⁸⁾

전문 대화 : 일곱 차례의 연속 워크숍

연방노동사회부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면서 미래사회 노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사회적 대화의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대화를 진행했다. 우선 학계 및 실무 담당자 18명의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조율했다. 이 대화는 일곱 차

례에 걸친 연속 워크숍을 필두로, 다양한 지자체·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토론과 컨퍼런스로 확대되었다. 아래에서는 노동 4.0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7회 연속된 워크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³⁹⁾

제1차 워크숍 : 노동과 개인 삶의 조화-생애주기 중심의 노동시간 구성을 위한 조건

첫 번째 워크숍은 생애 중심의 노동시간 배치를 주제로 2015년 6월 12일, 기업(경영진 및 직장협의회), 학계 대표와 정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워크숍의 목적은 △노동 유연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근무시간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 분석, △기업, 노동자, 사회적 파트너 및 정치에 적합한 조건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10명의 연사가 짧은 발표를 하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결과 생애주기 중심의 근무시간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경영진은 새로운 근무시간 모델을 수용해야 하고, 직원들 역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새로운 근무시간 규정을 실험하는 기간을 갖자는 제안도 있었다.

제2차 워크숍 : 모바일과 원격 작업

2015년 9월 14일에 개최한 두 번째 워크숍의 목적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배경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작업에 대한 경험을 논의하고, 모바일 작업의 성공 요인을 찾아내는 동시에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논의 결과 공간 이동성과 시간적 유연성을 갖춘 작업 스타일을 잘 활성화되도록 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제3차 워크숍 : 디지털화가 고용과 고용 형태에 미치는 영향

2015년 11월 30일에 열린 세 번째 워크숍의 목적은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통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었다. 디지털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나 붕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원에

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하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속적인 (전문분야)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공정한 크라우드 워크, 플랫폼 운영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제4차 워크숍 : 교육, 자격 및 재교육

2016년 2월 17일에 개최한 네 번째 워크숍의 주요 질문은 시간제 훈련과 같은 단체교섭 정책 수단과 추가 교육을 위한 국가 자금 지원(예: 고용보험 형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였다. 독일에서 새로운 훈련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과 추가 교육 구조의 적응, 추가 교육 모델 설계, 개별 행위자의 역할, 재교육 참여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제5차 워크숍 : 노동법과 공동결정

2016년 4월 14일에 개최한 다섯 번째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경제가 노동법, 직원 데이터 보호, 기업 공동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노동법이 경제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하도급이나 임시근로의 경우 운영상의 통일성과 공동결정의 타당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직장협의회와 고용주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제6차 워크숍 : 사회보장

2016년 5월 4일에 개최한 제6차 워크숍에서는 6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경 없는 노동, 불안정한 고용,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사회 보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자영업자, 크라우드 워커는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보다 훨씬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래서 1인 자영업자를 사회보장 시스템에 포함시켜 적절한 노후 대비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산

업 안전 문제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해보험을 통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제7차 워크숍 : 변화의 사회적 형성과 올바른 기업 거버넌스

2016년 7월 6일에 열린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워크숍에서는 ‘기술변화가 기업 조직과 사람, 기계의 협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디지털화는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 조직과 기업문화의 혁신을 요구하는데, 이는 직원의 고용을 안정화하면서 추가적인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변화된 근무 환경은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개념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고용주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한편 제 2 차 워크숍(9.14.)과 관련하여 디지털 변화에 관한 전문가 플랫폼은 2015년 9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문가들과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개별 행동 영역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107 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해 56%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34%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단지 9%만이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디지털화를 '직장에서 해방되는 기회'로 여겼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과 지원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⁴⁰⁾

연구와 조사

노동 4.0에 대한 시민 인식 연구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방노동사회부는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노동 4.0에 대한 인식’ 연구, ‘숙련 노동 공급과 수요에 대한 2030년 노동시장 전망’, ‘디지털 노동 전망 연구’를 비롯해 공동결정, 노동 유연성 등의 이슈에 대한 20편 이상의 학술논문 및 법률 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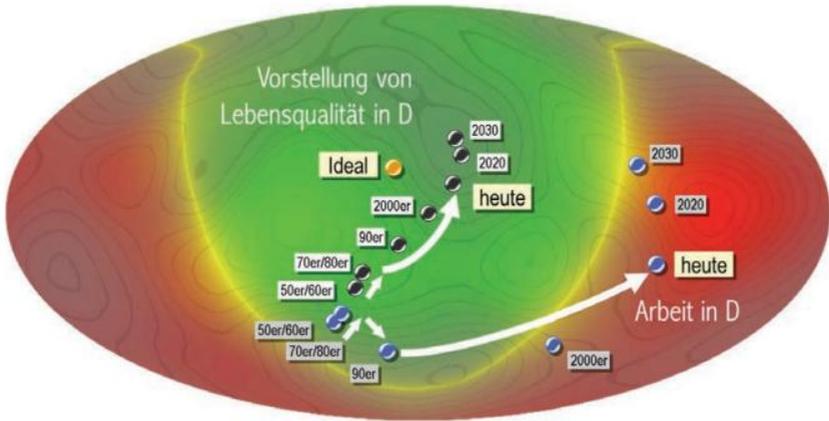
를 발간했다. 아래에서 1200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노동 4.0 에 대한 인식’ 연구를 살펴본다.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 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일과 삶의 요구와 필요도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사생활과 일의 양립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정부는 근로 환경의 변화를 바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생각과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 4.0 에 대한 인식’ 연구를 추진했다.

이 연구는 노동 4.0 사회적 대화 차원에서 ‘독일에서의 노동’을 주제로 실시되었다.⁴¹⁾ 독일의 노동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복잡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터뷰 대상자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되 꼭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도록 하여,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매트릭스에 코딩함으로써 3 차원 공간에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방식이다(아래 그림 참조). 1,200 개의 개별 인터뷰에 기초하는데, 표본으로는 독일에 사는 1000 명의 재직자(노동자), 20 세~64 세의 취업준비자, ‘가정주부(여성/남성, Hausfrauen/Hausmänner)’ 200 명(각각 100 명)을 대상으로 했다.⁴²⁾

면접 결과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기대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성취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들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국가를 지지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자신과 자신의 경력을 더 중시했다. 다른 이들은 정치, 노조, 기업이 함께 좋은 노동 조건과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일과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중시했다. 이를 모두 하나로 묶는 것은 어렵지만, 근로 조건에 대한 요구와 성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변화하는 디지털화된 작업 환경에서 노동자 참여에 대한 강력한 요구도 확인되었다

한편 서로 다른 가치관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유연성’이라는 용어는 어떤



[그림 2] '노동 4.0에 대한 인식' 연구결과와 샘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자리 개발을 위한 요소(파란색)와 삶의 질 개념(검정색) 및 이상적인 직업의 상관관계 (BMAS, <Wertewelten Arbeiten 4.0> 2016.3. 15쪽)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압력’을 의미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의미했다. 또한 디지털화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응답자들은 기술 혁신에 대한 훈련이 잘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들에게 재택근무, 유연한 근무시간, 개별적으로 설계된 유익한 근무 환경은 이전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기회가 될 것이라 인식했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역사적 차원에서의 평가이다. 누군가에게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노동계(직장)가 '좋았던 옛 시절'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로 인식되었다. 마찬가지로 현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상반된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유연성’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두드러졌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이

해관계 차이뿐만 아니라 근로자 집단 간에도 선호도, 관심사항, 요구사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의 구성에 있어 일과 사생활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 즉 '일을 종료'할 시점이 명확히 정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언제 어디서 일할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불공정한 노동 조건을 방지하는 국가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국가가 개입하는 국가주도 방식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면접조사를 통해 미래의 좋은 노동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양한 요구와 그를 충족하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된다.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북

연방노동사회부는 논의할 주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관련 정보, 흐름, 관점 등을 잘 이해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경험, 입장을 살린 의견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워크북을 제공했다. 안드레아 날레스 장관은 워크북 1권 머리말에서 사회적 대화와 이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하나로 묶고, 평가하고, 심화하고,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넓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과 유럽이 실리콘 밸리의 터보자본주의(Turbokapitalismus)⁴³⁾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경쟁 우위와 사회보장 및 이윤의 공정한 분배를 결합해야 한다. 이는 아마도 노동 4.0 대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결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⁴⁴⁾

워크북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1권, 2권이 제공되고, 백서가 나온 후에 3권, 4권이 제공되었는데, 이는 백서 발간이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논의를 위한 출발임을 알려준다. 워크북 1 권의 주제는 디지털화 되어 가는 노동세계(2016년 3월), 2 권의 주제는 우리가 원하는 작업 방식(2016년 8월), 3 권의 주제는 추가 교육(2017년 6월), 4 권의 주제는 전환 중인 복지국가(2017년 8월)이다.

각 워크북은 해당 주제의 담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노동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기능을 했다. 또한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의 대담 기록,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 사진 에세이, 독서에 대한 각계의 성명(입장) 등을 담아 시민에게 노동 4.0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워크북의 구성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0.여는 말, 1.분석, 2.토론, 3.실제 사례, 4.관점, 5.맥락, 6.전망 등의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사진 에세이가 많고, 다양한 도표, 차트,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주었는데, 편안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이 돋보인다. 각 권의 구성과 순서는 거의 동일하나 다른 부분이 간혹 있다. 소주제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0. 여는 말 :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해당 워크북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글과 사진 에세이로 구성.
1. 분석 : 연구를 수행한 연구 기관의 기고, 대화과정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전문가의 메시지, 연방노동사회부 자체 문건 등 지식전달 내용으로 구성.
2. 토론 : 대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 예를 들어 독서에 대한 노조, 협회 등의 성명이나 소셜 미디어 공개 대화.
3. 실제 사례 : '모든 이론은 회색'이라는 모토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 일상과 업무 현실에 대해 말하고 보고하는 내용으로 구성.
4. 관점 : 정부의 정책, 구상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의 제안 및 주장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
5. 맥락(KONTEXT) :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진행 중인 관련 담론과 연계된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
6. 전망(Uberblick)

노동 4.0 백서와 새로운 대화의 출발

백서 : 사회적 대화의 결과이자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자료

2015년 4월 연방노동사회부가 녹서를 발표하면서 미래의 노동에 대한 논의의 주제를 던진 후 다양한 연구, 워크숍, 영화제, 설문조사, 시민대화, 온라인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물이 2016년 11월 29일 최종 컨퍼런스에서 백서 형태로 발표되었다. 녹서가 던진 핵심 질문은 디지털화와 이에 따른 사회 변화에 직면하여 ‘좋은 일(양질의 노동)’이라는 기본 원칙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였다. 백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백서 발간은 녹서의 질문에 대한 완결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정리하고, 해결하지 못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즉 새로운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기초 자료 성격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은 백서를 발표한 이후 출간된 워크북 4 권에서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 과정은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그 성공 핵심 요인으로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꼽았다. 그리고 대화의 결과에 따라 변화를 이끌 새로운 노동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노동 4.0의 후속 작업이자 점진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학습과 실험’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파트너십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화의 흐름-갈등 요소-방향 설정-과제 제시-협력 강화

백서는 사회 변화의 흐름과 이 흐름을 이끄는 동력을 살펴보고(1장),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소를 고찰하며(2장), 독일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노동세계의 방향을 설정한다(3장). 이어 이상적인 노동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4장), 혁신의 시도와 사회적 협력

구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5 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장에서는 디지털화(IT 와 소프트웨어, 로봇과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글로벌화, 미래 인구동향(외국인 유입 등)과 높아진 노동의 질적 수준 요구, 문화적 변화(가족과 소비 행태의 변화, 노동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등 현 직업 세계 변화의 주요 추세와 중요한 동력을 제시한다.

2 장에서는 기업, 직원(노동자), 사회적 파트너, 협회, 의회, 연방 및 각 주 차원의 정치인과 기타 행위자에게 새로운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는 갈등 요소를 살펴본다. 여기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① 디지털화의 진행과 고용 지속 여부, ②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미래 시장과 업무 형태에 미칠 영향, ③ 빅데이터 시대 노동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④ 인간과 기계의 협업 방안, ⑤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 유연성 방안, ⑥ 노동자의 기업 참여와 사회보장 등이다. 백서에는 이러한 갈등분야의 위험 요소와 기회 요소를 동시에 접근한다.

3 장에서는 디지털화 되어가는 노동세계에서의 이상적인 ‘좋은 노동(양질의 노동)’에 대해 살펴본다. 독일 경제의 장점을 더욱 잘 살려가기 위해 디지털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선결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① 경쟁력 있는 임금체제와 사회 안정(복지), ②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구상, ③ 다양한 형태의 노동 인정과 노동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 ④ 디지털화가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생산과정과 사업 형태를 새롭게 조성하고 ‘노동보호 4.0(Arbeitsschutz 4.0)’을 발의해야 한다.

4 장에서는 독일 사회가 처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 고용보험 확대와 재교육 받을 권리 보장, ② 노사협의 법적 기반 마련 및 노동자의 선택권 보호, ③ 디지털화에 따른 돌봄(케어)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서의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 ④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보장(산업안

전 4.0' 제안), ⑤ 기업의 직원정보 이용 규제 및 보호 방안, ⑥ 직원 참여의 광범위한 기반 마련과 직장협의회 권리 강화, ⑦ 자영업자, 재택근무자, 클라우드 워커 등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보험 시스템 정비, ⑧ 생애 과정에서 고용을 안정화하고 전환을 용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5 장에서는 향후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찰한다. 향후 노동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며, 노동의 유연성 타협을 위해서 단체교섭 협약, 직장협의회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와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실험적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분배문제,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다.

독립적이고도 저항적인 협력

노동 4.0의 대화 과정을 모두가 옹호하고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대화 과정과 논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2016년 9월 22일, 독일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e.V.) 베를린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협력하여 '노동 4.0 - 젠더 사각지대(Blind Spot Gender)'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노동 4.0은 성평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성별 임금 격차가 독일의 경우 21%로 국제 기준으로 매우 높다는 지적과 함께 디지털화 문제에서 젠더 관점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⁴⁵⁾

또한 독일자영업자협회(VGSD)는 최종 컨퍼런스 개최 직전인 2016년 11월 21일 홈페이지에 보고형식의 문건⁴⁶⁾을 통해 개막 컨퍼런스에 자영업자는 한 명도 연단에 초대되지 않았으며, 녹서가 개방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다양하게 진행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여 자영업자들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노동 4.0은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대화 과정뿐만 아니라 주정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기관이 독립적으로 진행한 대화 과정도 있었다.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사회, 정치, 기업의 발전 경로가 어떤 모습일지 불확실하다며, 중소기업이 디지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의 미래’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들은 사례 연구를 통해 업무 및 생산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시스템으로 전환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노동 4.0을 주제로 한 출판물을 발간했다. 또한 2015년 6월 3일, ‘디지털화 시대에 업무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로 ‘노동 4.0 바캠프(BarCamp)’를 개최하고, 현대 직업 세계의 잠재력과 도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⁴⁷⁾

사민당(SPD)이 집권하던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정부에서는 ‘노동 4.0: 저주인가 축복인가?’라는 주제로 사회적 대화 진행했다. 주정부는 이 행사를 포함해 노동조합, 사용자 대표들과 대화 과정을 통해 ‘노동 4.0’을 주제로 마스터플랜을 개발하고자 협력했다.⁴⁸⁾ 한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NRW)주는 ‘NRW 4.0 : 훌륭하고 공정한 노동(NRW 4.0: Gute und faire Arbeit)’ 대화 과정을 진행하고 기업과 노동자들의 대화를 지원했다. 이들은 2018년 5월에 주(州)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네트워크화하고,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람과 경제를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와 노동 4.0 이니셔티브 공동 선언>(Gemeinsame Erklärung der Initiative Wirtschaft & Arbeit 4.0)을 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⁴⁹⁾

노동 4.0 사회적 대화 과정이 주는 시사점

노동 4.0 사회적 대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전해 준다.

첫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 공론장 형성이다. 노동 4.0 사회적 대화에 시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한 것은 대화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각각의 온-오프 대화 마당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협의해 나갔다. 학계, 기업, 노동조합, 사회단체, 대학, 언론, 지자체 등 다양한 조직과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미래의 노동에 대한 폭넓은 토론의 장을 조직하고 지혜를 모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둘째, 체계적으로 준비한 기획과 절차이다. 노동 4.0 은 개막 컨퍼런스에서 녹서를 공개하며 함께 논의할 과제를 제시하고, 중간 컨퍼런스를 거쳐 최종 컨퍼런스에서 토론하고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백서를 발표하기까지 약 1년 8개월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많은 영역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개 대화, 전문 대화, 연구, 영화제, 설문조사,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는데, 꼼꼼한 기획과 섬세한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다양한 참여 공간 제공 및 폭넓은 사회적 대화이다. 사회적 대화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공론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퍼런스, 타운홀미팅, 워크숍, 영화제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오프라인 공론장과 연방사회노동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이트에서의 의견수렴 등 온라인 공론장을 제공함으로써 폭넓게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점진적 과정과 연속적 흐름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동 4.0 대화는 2000년대 초반 산업 개혁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여 산업 4.0의 참여형 플랫폼 단계를 지나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백서 발간 이후에도 워크북이 발간되고, 학습과 실험의 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다차원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다섯째,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통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책을 다루거나 토론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거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이번 대화 과정을 보면, 정부, 학계, 전문가 집단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관이나 개인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또한 영화, 사진 에세이 등 지식 전달만이 아닌 감성적인 부분까지 제공한 점은 풍부한 상상력과 깊은 통찰력을 제고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여섯째, 거대한 변화를 대비하는 정부의 자세이다. 노동 4.0 사회적 대화의 기획, 진행, 방식, 태도 등은 정부가 취해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답을 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개방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보가 건강하고 연대 의식이 강한 사회,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젠더정의 확산 사례 : 이만시페이터(Emancipator)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힘과 그에 대한 반발
전환의 남성성
네덜란드 시민단체 이만시페이터를 만나다
젠더정의를 위해 식탁에서 대화하는 남자들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할 때가 젠더정의 단체를 세울 때
소년과 남성, 젠더정의를 위해 행동하고 주말에 모이다
따로 떨어져 있던 개인들을 연결한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
정부는 지원, 협력, 수렴하고 시민은 지지하거나 참여한다.
공익활동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함께이기에 분노와 증오가 아닌 자비와 사랑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고, 왜 함께 해야 하는가?

황금명륜

성평등 교육활동가로서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UN Women Training Center의 젠더트레이너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고, 성평등을 위한 남성성교육을 고민하고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힘과 그에 대한 반발

젠더정의란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할 때, 여기서의 정의로운—정의(正義)에 벗어남이 없이 올바르다고 함—은 젠더의 관점에서 교차적으로 점검했을 때 또한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로,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성평등은 비단 한국에서만 논의되는 의제는 아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운동에 대한 반동이자 성평등 의제에 대한 반발을 뜻하는 백래시⁵⁰⁾는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고 있고, 젠더 불평등 상황은 놀랍게도 비슷하지만, 모두 같은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젠더갈등’이라고 부르는 상황은 정당한가? 이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 젠더갈등을 개선한 사례로 전환의 남성성을 교육하는 네덜란드 단체 이만시페이터를 조사하자고 제안 받았을 때, 젠더갈등이라는 단어부터 걸렸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것과는 달리,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성요소로서 페미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를 ‘젠더갈등’이 아닌 성차별적 상황이 여전하다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한 후 이만시페이터의 활동을 소개하겠다.

2015년 제 70 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불린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⁵¹⁾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자고 설정한 목표 열일곱 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가 성평등이다.

인류가 존재한 시간동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인류는 수십 세기를 거쳐 수많은 투쟁을 통해, 인간 스스로가 만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빈곤과 기아, 폭력과 전쟁,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 질병과의 싸움, 경제적 양극화 등의 모든 사회·정치·경제적인 문제에 젠더렌즈를 투영해서 교차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보는 노력은 특히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 4차 UN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이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계적 흐름과 함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라는 공식 명칭 아래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을 내걸고,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과 같은 5대 전략⁵²⁾을 세웠다. 5대 전략 중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이라는 제 1 전략에서 “성평등 보장”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이고 국가적 노력에도 한국 내 여성혐오 문화는 점점 더 확산되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젠더갈등’이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쓰이기 시작하며 마치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고 갈등하는 문제로 보는 인식도 커졌다.⁵³⁾ 또한 2021년에는 양궁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한 여성선수의 스포츠 헤어스타일이 ‘페미’라며 대규모 온라인 공격이 일어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 일각이 소위 ‘이대남’의 표심을 얻는다며 젠더 갈라치기를 부추기는 정책방향을 내세우기도 했다.⁵⁴⁾

젠더갈등이라 불리는 현상은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위치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석하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젠더규범과 젠더위계 등을 이해하는 인식 수준의 격차로 인한 혐오표현과 배제의 양상이 사회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므로, 성차별이 여전한 구조 안에서 차별 대상인 ‘젠더’를 호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적인 상황이 흑인에 대한 차별에서 발생하므로 ‘흑백갈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종차별’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만약 성차별이 우리나라

에 아직도 남아있냐고 묻는다면,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나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의 순서대로 전 세계 국가들을 줄 세웠을 때 우리나라가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로 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성평등이 향상되었다는 것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권리가 신장되었거나 최소한 평등해졌다는 착각, 또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한 백래시는 그들의 착각을 확산시키거나 그들의 공격성을 따라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다.

그런데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전 지구적 움직임에 뒷덜미를 잡으려는 백래시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맨앤게이지(MenEngage Alliance)다. 전 세계 97개국에서 1100여 개의 NGO들이 참가한 세계적인 동맹인 이 단체는 성평등을 위한 남성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연대활동을 펼친다. 또한 여성 권리와 성평등에 대한 구조적 장벽을 해체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젠더정의와 인권을 인정하고 증진하고 보호하며, 비전—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계—을 공유한 사람과 조직을 하나로 묶기 위해 활동한다.⁵⁵⁾ 현재 맨앤게이지는 안티페미니즘 움직임과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 사례를 지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백래시는 세계 곳곳에서 때로는 비슷한 양상으로, 때로는 각 사회별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다소 늦게 소개되어 올 초, 젠더교육 플랫폼효재가 처음으로 맨앤게이지의 회원단체로 승인되어 활동 중이다.

전환의 남성성

필자는 2022년 4월~5월, EU 국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전략으로 “성평등 의제에 남성을 주제로 참여시킨다”는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자 과정을 공부했다. 네덜란드 NGO인 이만시페이터(Emancipato)를 방문해 ‘유럽지역의 성평등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남성행

동, 이매진 툴킷(IMAGINE⁵⁶ Toolkit)'을 살펴보고 진행자로서 운영법을 전수받았다.

이매진은 소년과 남성을 전통적인 성별규범 즉 맨박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훈련프로그램이다.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등 폭력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유해한 남성성을 유익한 남성성으로 전환시키자는 캠페인 기능을 담은 교육도구로서, 다양한 게임방식을 교육에 접목한 형태로 놀이와 학습이 공존한다. 이매진은 네덜란드의 이만시페이터, 스웨덴의 맨(MAN), 영국의 비욘드이퀄리티(Beyond Equality)가 연합하여 제작한 교육도구 모음집으로 2018년, 전 세계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었다.

이매진을 학습한 성평등 교육활동가로서, 필자는 한국 사회의 많은 동료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를 다루는 관점과 접근법으로 이매진 도구를 활용해 전환의 남성성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 각지를 돌며 이매진 워크숍을 진행 중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노력 끝에 양성된 이매진 도구를 이해한 진행자 230여 명은 각자의 교육현장에서 여러 형태와 방식으로 적용 중이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해준 네덜란드 NGO인 이만시페이터의 창립자이자 원장인 옌스 판트리흐트(Jens van Tricht)는 이제 한국의 활동가들과 세계시민 동료로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네덜란드에서 젠더정의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가 묻고 옌스 씨가 답했다. 그다음 그와의 인터뷰에서 얻은 통찰을 정리하겠다.

네덜란드 시민단체 이만시페이터를 만나다.

젠더정의를 위해 식탁에서 대화하는 남자들

△ 이만시페이터를 소개해 달라.

이만시페이터는 젠더정의를 위해 일하는 네덜란드 단체로 2013년에 설립해, 2014년에 단체 등록을 마쳤다. 우리의 임무는 젠더정의를 촉진하고 그를

위한 솔루션의 일부로 남성을 참여시킴으로써 사회 정의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은 젠더정의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젠더정의는 남성이 함께 기여할 때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성이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남성들이 남성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른바 여성적 측면을 통합한다면 남성이 더욱 인간다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주요 활동은 폭력적인 남성성을 전환시켜 종래에는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우리는 해결책의 일부가 되고 싶은 남성들을 위해 매년 주말 워크숍을 조직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매진 워크숍으로 청소년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성성, 폭력, 성, 경계와 동의 문제를 다루는 이매진 트레이너를 양성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소년과 청소년들이 자라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뿐만 아니라 자녀를 원하는지,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싶은지 생각하는 인간적 성장에 대한 질문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주요 활동은 캠페인, 워크숍,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이만시페이터의 창립자인 나는 개인적으로 1990년부터 남성과 소년을 성평등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여성학을 연구했고, 남성과 남성성을 전문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학문적으로 다양하게 탐구해 왔다. 그 과정에 다양한 종류의 조직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한때는 이만시페이터의 전신인 키친테이블(The Kitchen Table)을 통해 네덜란드 젠더 플랫폼(Women Equals Men)에서 남성과 젠더정의에 관한 실무자로 일하기도 했다.

△ 키친테이블이란?

20여 년 전에 네덜란드의 성평등부 장관이 “성평등은 끝났다. 이제 성평등은 달성되어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니, 남은 문제가 있다면 이는 식탁에서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당연하게도 그 때의 네덜란드 사회는 결

코 성평등하지 않았고, 남성들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탁에 앉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두 남성들과 함께 키친 테이블이라는 모임을 결성해 네덜란드 전국에서 다양한 남성들 때로는 남녀 혼성그룹을 만들어 토론 릴레이를 이어갔다. 토론의 주제는 두 가지 요점으로 전국을 돌며 수년 간 다양한 그룹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모어나갔다.

토론의 첫 번째 의제는 ‘어떻게 남성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을까?’이다. 그 토론은 베이징 행동강령⁵⁷⁾에서의 여성운동 의제만큼 광범위했다. 사회의 모든 부정의가 젠더, 여성과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남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다. 남성은 더 많은 안전에 기여하고 폭력에 반대해야 하며 교육, 의료, 평화, 갈등, 기후, 빈곤 등 성평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연관되어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토론 의제는 ‘성평등으로부터 남성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였다. 토론 결과 답은 자명했다. 모든 곳에서 남성은 더욱 인간적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남성들은 성평등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개인적 성장을 하게 된다. 더욱 인간적이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몇 년 동안 키친테이블 활동을 했고, 남성들과 식탁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노력하다가 2009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맨앤게이지의 첫 번째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이 키친테이블 사례를 소개했다. 이런 활동이 이어져 맨앤게이지 세계동맹 창립에 참여하게 되었고, 남성과 성평등이라는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전문적인 시민단체 창립까지 이어졌다.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할 때가 젠더정의 단체를 세울 때

△ 이만시페이터를 설립하게 된 사회적 상황은 무엇이었나?

이만시페이터는 앞서 설명한 키친테이블 활동 그리고 맨앤게이지 창립에 참여한 과정으로 탄생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만시페이터를 남성성 운동 조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평등을 위해 소년과 남성을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젠더정의 단체라고 표현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다.

남성과 소년의 삶에는 실제로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소년과 남성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남성 단체는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젠더평등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이지, 남성 운동 또는 남성 네트워크, 더 정확하게 소년과 남성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네덜란드에서 수십 년 간 함께 활동한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활동에 남성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여성 단체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젠더폭력, 불평등한 임금, 불평등한 소유, 불평등한 책임 등 세계의 젠더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이만시페이터를 만들던 그 시기에 나와 우리 동료들은 남성들도 이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함께 해야 될 때라고 느꼈다.

이만시페이터를 설립하게 된 네덜란드의 상황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주류 정치인들은 한국처럼 “이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는 한다. 어느 곳에서는 조금 일찍, 다른 곳에서는 최근이라는 시기적 차이를 두고 일어날 뿐 우리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성불평등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운동 단체와 함께 일하는 남성들이 참여하는 젠더정의 조직을 만든 것이다. “소년과 남성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제를 다루는 조직도 있어요!”라고 연대하고 싶었다. 당연히 초기에는 성평등 활동 분야에서 소년과 남성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회자원이나 정책 우선순위가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네덜란드의 시민사회나 정부 정책에서는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운동 동료들과 함께한 연대와 협력의 과정이 만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의 동료이자, 조언자이고 파트너이기도 했다. 이제 네덜란드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모두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성평등이요? 네, 이 주제는 소년과 남성의 역할 및 남성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소년과 남성, 젠더정의를 위해 행동하고 주말에 모이다

△ 이만시페이터의 대표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하나를 대표활동으로 선택하기가 무척 어렵다. 첫 번째는 이매진 툃킷이다. 유럽 전역의 맨앤게이지 파트너들과 함께 툃킷을 만들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자를 모집하고 훈련하고 안내하는 것은 흥미로운 과정이었다. 매우 기억에 남는 일이고 우리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또 다른 대표적인 활동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네덜란드 내 화이트 리본 캠페인⁵⁸⁾이다. 매년 네덜란드의 수백 여 명 남성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이트리본 운동은 성평등과 젠더폭력에 반대하는 150 명이 넘는 남성 홍보대사들을 모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해결책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남성시민들이 참여하는 연례행사인 주말 워크숍이다. 이는 남성성의 변혁적 주말이라고 불리는 심층 워크숍이다.

정말 한 가지만 말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해왔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여러 정책 입안자들과 시민단체들과 함께 “남성 해방”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제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 노력은 잔물결이 되어 더 멀리 퍼지고 있다고 느낀다. 바라건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향이 되면 좋겠다. 언젠가 이만시페이터가 아니더라도 남성 해방과 젠더정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여전히 이 일을 잘 해나갈 사람들이 존재하고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만시페이터의 종점이다.

따로 떨어져 있던 개인들을 연결한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 네덜란드 시민단체의 역사나 역할을 소개해 달라.

네덜란드에서 기둥화(pillarization)라고 불리는 정치적 상황이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민족이나 인종 또는 국적 등 자기가 속한 그룹을

각각의 기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그 기동들은 각자의 공동체로 기능하며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당을 갖고 있다. 사실 정당뿐만이 아니다. 네덜란드 사회는 자신의 배경이나 신념 또는 소속집단에 따라 학교, 교회·사원 등의 종교 시설, 극장 같은 문화시설, 심지어는 빵집이나 정육점, 슈퍼마켓 등 상점까지 각자의 기동 안에서 생활하며 분열된 채 살아왔다. 각자의 기동에 속해 다른 기동과는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고 지낸 시대를 우리들은 분열된 사회라고 부른다. 때로는 작은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이 기동과 기동 사이에서 교류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울타리 안에서 그저 자족적인 수준에서 즐겁게 지내곤 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기동의 꼭대기, 즉 지붕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정책과 행정을 통해 지붕을 연결하기 시작했지만, 1970~1980 년대를 지나면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해 지붕연결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복지단체, 청소년단체, 빈곤 구호단체, 여성단체 등이 활동하며 각 기동에 소속된 시민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속한 집단(인종이나 국적, 또는 종교적 신념, 정치적인 성향 등에 따른 조직 등)이 최우선 순위이므로 시민들의 기부금은 대개 그곳으로 향한다. 그러다보니 NGO 들의 활동을 돕는 재정적 자원은 대부분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나온다. 물론 회원이나 지지자, 기부자 등의 시민 개인들로부터 재정적 자원을 얻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 협력, 수렴하고 시민은 지지하거나 참여한다.

△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단체의 활동을 실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등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선거가 끝나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지만, 정책결정은 정치인들이 좌우하거나 시민사회와 함께 일

하는 정책 고문, 행정가들에게 달려 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 성평등부서는 교육부 안에 편재되어 있는데, 이 성평등부서와 교육부 전체는 정책 개발에 성평등 조직을 포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의사결정권자인 교육부 장관이 성평등분야의 시민사회 출신이 아닌 이상, 성평등 운동 단체에 자금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만시페이터는 2015년부터 정부 부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에 나는 이만시페이터가 정부와의 관계가 충분히 좋지도 그렇다고 충분히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와 성평등 전담부처와의 거버넌스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정부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시민단체 활동의 범위는 넓다. 이만시페이터는 여성단체와 정부 지원금을 경쟁하고 싶지 않기에,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의 크기 자체를 키우는 일을 여성운동 단체와 함께하고 있다. 작년에 40개 단체들이 함께 장관에게 더 많은 성평등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연대공문을 보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는 정책 입안을 위해 경쟁하기도 하고, 때때로 협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만시페이터는 기후 행진 등을 통해 환경단체들과도 매우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겨우 연정을 펼치는 정부의 한 정당만이 기후위기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년 동안 강간에 관한 새로운 법안에 대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 캠페인은 명시적으로 '예'라는 대답이 없이 일어난 성적 행위는 모두 강간이라는 정의를 내리기 위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여 왔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시민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또한 시민단체가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에 참여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 시민의 신뢰도나 호감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이만시페이터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는가? 어떻게 시민들의 호감도

를 확인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종류의 대규모 조사 연구를 수행할 자원도 없고 시도된 적도 없다. 실제로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이만시페이터의 재정 상태와 자원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난 수년 간 프로젝트 자금이 끊이지 않고 확보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프로젝트의 지속하면서 우리가 네덜란드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는 사람들의 숫자나, 매년 개최하는 여러 이벤트와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 등을 시민들로부터 받는 호감도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시에 매주 “오! 이만시페이터라는 단체가 있는 줄 몰랐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우리가 여전히 큰 조직이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이만시페이터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진행되는 전국적인 화이트 리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우리를 모르는 것 같다고 느낀다.

이만시페이터는 종종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점점 캠페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 보이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도달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도달해야 할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소셜미디어 캠페인에서 아직 부정적인 반응이나 백래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평등에 반대하는 자들이 아직 우리를 모르거나, 우리의 활동을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시민들로부터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공익활동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 이만시페이터의 주요한 재정적 자원은 무엇인가?

재정 자원은 네덜란드의 교육부 내 성평등부서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크다. 3년 연속 프로젝트인 화이트리본 캠페인, 젠더폭력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남성의 동행 프로그램까지 세 개의 굵직한 프로그램을 성평등부서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정부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네덜란드 정부도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때 실무자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간접비를 지원하는 것을 꺼린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시민단체인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구조적 자금, 안정적 재원이 없다. 네덜란드의 대부분 시민단체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네덜란드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제공자는 민간기업과 정부할 수 있는데, 그들은 단체의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만을 지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다른 단체의 대표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 예산을 정부로부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요구와 개입이 많아 정작 단체 활동가들이 하고 싶은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을 받다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만시페이터는 회원조직이 아닌 재단 성격의 단체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회비 수입은 없다. 그렇지만 후원회원들이 있어서, 이들이 매달 조금씩 기부를 하고 있다. 후원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 또한 기초 지자체로부터 시민 캠페인을 위한 보조금이나, 작은 교육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도 있다. 한 가지 좋은 신호는 다른 시민단체나 노조 같은 조직, 학교, 청소년 단체, 기업 등에 이매진 워크숍을 제공하며 얻는 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

난 10년간 이만시페이터의 활동이 조금씩 결실을 얻기 시작한다고 느끼는 부분이다. 이제 네덜란드 시민사회에서도 “소년과 남성을 대상으로 함께 일하자” 말하는 조직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은 종종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한다는 제안을 해오고 있다. 이매진 툃킷을 개발하던 5년 전에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학교에 무료로 워크숍을 제공하며 파일럿 프로그램에 1800여명을 참여시켰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예산을 배정해 워크숍 개최를 문의해 오고 있다. 여전히 전체 예산에서는 아직 큰 비율은 아니지만 분명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 세계 NGO들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을 소개해 달라.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은 맨앤게이지 유럽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었다. 맨앤게이지 유럽은 2009년에 시작되었지만 몇 년간 이렇다 할 연대활동이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2013년에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비록 예산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유럽 전역의 15개국 활동가들이 암스테르담 나의 집에 모여 며칠 간 함께 먹고 자면서 워크숍을 진행해 집중토론을 했고, “같이 무언가를 시작해보자”고 결정해 스스로를 운영 위원회라고 부르며 몇 가지 연대사업을 확정했다. 드디어 2014년, 크로아티아 자글레브에서 첫 번째 회원 모임을 조직하면서 맨앤게이지 유럽 네트워크의 공식 활동이 시작되었다. 예산이 전혀 없는 협업이었지만 정말 재미있었다. 그 이후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유럽 네트워크 회의를 조직했고, 2015년 브뤼셀에서 성평등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그 때 네덜란드와 스웨덴, 영국의 NGO들이 주관하고 크로아티아와 오스트리아의 조직들이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이매진 툃킷 개발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수십 차례의 이매진 워크숍을 진행한 후 201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

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매진 툴킷을 발표했다.

그 후 이만시페이터는 다른 유럽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여러 번 초대를 받기 시작했다. Breaking the Cycle 이라는 프로젝트는 스페인과 미국, 인도, 스리랑카, 마다가스카르, 사모아의 NGO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성평등과 전환의 남성성’을 돕는 가이드라인 공동제작 작업이었다. 우리는 이 또한 모범 사례 가이드라는 출판물로 전 세계에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이처럼 젠더폭력 예방에 소년과 남성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의 고무적인 실천 사례를 우리 웹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뒤로도 이만시페이터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로부터도 또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고 이매진 툴킷보다는 조금 더 어린 소년과 청소년들 즉 8 세부터 15 세까지의 소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교육도구 모음집을 제작했다. 이 또한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영어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Equitine 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NOG 들과 협업해 거리 괴롭힘을 예방하는 툴킷을 개발하고 진행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내년 4 월에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해 암스테르담에서 공개하고 보급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언젠가 한국의 NGO 와도 협력하여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도구나 모범사례 가이드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함께이기에 분노와 증오가 아닌 자비와 사랑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옌스 씨는 특별히 한국의 활동가들에게로 연대사를 보내왔다. 그의 마음을 그대로 전한다.

친애하는 한국의 동료, 활동가, 남성, 여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일하고, 젠더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소년과 남성의 삶을 개선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로 소년과 남성을 참여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여성과 소녀, 그리고 모든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감사드리며, 맨앤게이지 세계동맹에 한국인들이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덜란드는 이제 막 선거를 치렀고 한국과 다르면서도 비슷한 강한 백래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랬듯이, 이 백래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낙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욱 인간적이 되고, 더욱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넘치고 평등해지는 인류의 진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네덜란드의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 학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하며, 세계 곳곳의 다른 모든 위협과 불의, 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해!”라고 느꼈던 인생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는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반복의 연속성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토록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력감을 느낀 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 이 무력감을 안은 채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남성인 제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남성성이 남성들에게 가르친

것보다 실제 남성은 우리 인간은 훨씬 더 무력합니다. 우리는 남성성에 대한 신화가 말해주는 그 영웅이 될 수 없는 경우를 훨씬 많이 겪습니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 영웅이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며 심지어 종종 폭력과 많은 문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백래시의 상당수는 지배적이고 통제하며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는 동일한 가부장적 남성성 패턴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와 해결책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다른 남성들에게서 같은 경향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수동적이어야 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제가 느끼는 분노와 두려움, 슬픔과 증오를 사랑과 연민, 협력과 이상주의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활동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사회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여성 운동가들에게서 배운, 항상 존경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의와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할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파티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여성운동가들은 수많은 좌절의 상황에서도 분노와 증오, 전통적인 남성성을 재생산하지 않고 정의와 공평,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을 닮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래시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가부장적 생각에서 여성과 남성을 해방시키고, 우리 자신과 서로가 지금까지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인간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우리 모두의 활동이 올바른 길이며,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이며, 앞으로도 이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고, 왜 함께 해야 하는가?

이만시페이터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남성해방은 남성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이만시페이터는 남성과 남성성에 대한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평등을 이루려면 남성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만시페이터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젠더와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상의 많은 문제가 종종 남성과 남성성에 의해 발생한다는 부분을 인식하여 남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해방과 페미니즘 문제에 남성을 참여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그들이 말하는 남성 해방은 폭력적인 남성성을 타파하고, 배려하는 남성성을 장려함으로써 여성과 성소수자의 해방과 전통적 남성성으로부터 남성의 해방에 기여하는 것이다. 불평등과 특권이 젠더를 넘어 인종차별, 이성애주의, 연령차별, 계급차별, 기타 불평등한 문제들이 특권과 소외의 축이 교차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만시페이터와 맨앤게이지는 남성 자신을 위해 성평등 사회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고, 남성이 해방되어야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사명과 비전을 남성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토론하고, 실행방법을 찾아 함께 도전해 보는 여정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만시페이터에는 전환의 남성성이 필요하다고 자각한 남성들과 성평등을 위해 더 많은 남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여성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페미니즘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남성이 필요하고, 남성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페미니즘이 필요하니, 상부상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체와 단체 사이 그리고 전문가와 활동가를 서로 연결하고, 서로 다른 주제를 연결하고, 남성 해방에 대한 지식, 정보, 영감을 전파하며 해방 및 남성성 분야의 다른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한다. 소년과 남성들의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을 장려함으로써 전문가, 활동가 및 남성 개인의 환경에서 남성 해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 영감 및 도구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이만시페이터가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남성 해방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와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 회사 및 기타 조직에서 맞춤형 교육 과정과 워크숍을 제공하고 모든 종류의 관련 주제에 대한 출판물을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다.

20년 전 네덜란드의 한 정부관료가 “성평등은 달성되었으니 이제 성차별에 대한 남은 개인적 과제가 있다면 식탁에 모여 이야기하”라는 말은 2022년 대한민국의 모습과 많이 닮아 보인다.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는 네덜란드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아주 다양한 양태로 변화·발전하며 진행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 백래시에 대해해서 이만시페이터가 생기고, 맨앤게이지가 결성되었다. 한국사회에도 이러한 남성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태동되고, 곳곳에서 성평등교육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거나 젠더정의를 위한 남성학 연구에 뛰어들 연구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 이만시페이터나 맨앤게이지의 선구적인 활동에 함께 연대할 때이다. 우리는 이 반복적이고도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재생산되는 성평등의 물결을 가로막는 퇴행의 움직임을 지구적 차원에서 함께 해석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구적 연대와 또한 도시에 각 국가별 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백래시는 뒤에서 잡아끄는 힘이다.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잡아끌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생길 수 없는 힘이다. 백래시가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만시페이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록 나는, 비록 우리 스스로는 어느 시기엔가 힘이 떨어져 활동을 종료할지라도 우리로부터 퍼져나간 또 다른 누군가 ‘우리’가 되어 이 운동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이상, 젠더정의시대는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다.



삶의 질 개선 사례 : 영국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내가 나약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질병
영국 정부의 외로움부 창설과 종합계획 마련
연결사회를 위한 비전
외로움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 세 가지
외로움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마음의 소중함을 알아가기 위한 캠페인
낙인 줄이기
지속적인 변화 추진
증거기반 확대
외로움 대응을 위한 주체별 역할
연결되고 연대하며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되새기기

정하운

지역학 중 미국정치를 전공하여 기후변화 정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녹색당에 관심을 가지던 중 민주시민교육의 길로 들어섰다. 다수의 대학에서 연구교수를 거친 후 독립연구자로서 연구 활동과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할 때, 소외감을 느낄 때, 갈등이나 불화가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거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영국의 고인이 된 조 콕스(Jo Cox) 의원은 “외로움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나약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부적응적인 경험으로 인해 현 상황을 즐기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사회적 관계들이 피상적이거나 개인이 원하는 것보다 덜 만족스러울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한다.⁵⁹⁾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필요와 그 시간을 개인이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즐기는 상태’인 고독과는 다르기 때문에, 외로움의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외로움에는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이 있다. 정서적 외로움이 부모, 친구, 배우자 등 중요한 애착대상이 없어서 나타나는 쓸쓸함의 감정, 불안함,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사회적 외로움은 공통된 관심과 활동을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인 친구나 동료집단, 이웃에 소속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없거나 붕괴되었을 때 개인에게 나타나는 상실감, 지루함, 사회적 배제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정서적 외로움이 개인의 성격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회적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나 변화나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서 느낄 수 있다. 또한 경쟁사회에서 뒤처짐을 경험했을 때,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만연할 때, ‘여자는 이래야 해’ ‘가장은 이래야 해’ 등 정형화된 역할을 요구받을 때에도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

회문화적 배경에서 외로움에서 비롯된 자괴감, 우울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이 모두 개인의 탓은 아닐 것이다.

외로움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질병

사회적 외로움은 사회적 연결망이 약화되거나 붕괴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통합감을 갖게 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외로움의 심각성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국가가 바로 영국이다. 2018년 영국 정부는 ‘각자가 원하는 양질의 사회적 관계 불일치에서 비롯된 주관적이고 반갑지 않은 감정’으로 외로움을 정의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창설하여 영국 내 외로움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하였다.

영국 정부 차원의 외로움 대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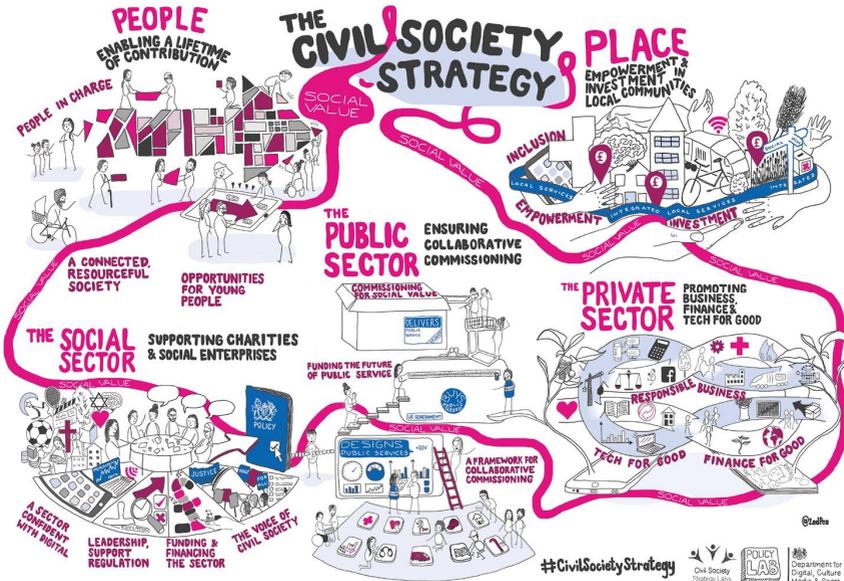
영국 정부의 외로움부 창설과 종합계획 마련

조 콕스 노동당 하원의원은 생전 외로움이 개인의 정신적 고통과 삶의 질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주도하였는데, 2016년 6월 16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중 총격을 당해 사망하였다. 이후 외로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던 조 콕스 의원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17년 1월 ‘조 콕스 외로움 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가 조직되었다. 위원회는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조 콕스 전 의원의 비전에 영향을 받아 구성되었고, 사람들의 연결을 목표로 하였다. 외로움은 여성, 남성, 노인, 아동, 청년, 난민, 장애인 등 어떠한 배경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 콕스 위원회는 외로움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영역인 국가 리더십, 성과 측정, 행동 촉진을 제

시하였다. 위원회는 외로움과 관련한 국가 리더십의 공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가 외로움과 관련한 전 연령층에 걸친 포괄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사회적 고립과 단절 문제에 국가적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장관급 책임자를 임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위원회는 정부가 전략을 혁신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사업체, 재단 등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행동이 정부만이 아닌 시의회 의장,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리더,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¹⁾

조 콕스 위원회의 행동 지침은 이후 영국 정부의 상징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였다. 2018년 1월 당시 총리였던 테레사 메이(Theresa May)는 스포츠 시민사회 장관(Minister for Sport and Civil Society)이 외로움 담당 장관을 겸하도록 임명하였고, 외로움과 관련한 정부정책과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팀이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내에 구성되었다. 2018년 8월 영국정부는 <시민사회 전략: 모두를 위한 미래 만들기>(Civil Society Strategy: Building a future that works for everyone) 보고서⁶²⁾를 발간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지원할 정부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외로움이 주제는 아니었지만, 시민사회 내 다양한 영역의 연계와 사회적 가치 구축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외로움과 사회적 연계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새로운 기술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를 지탱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보다 연결하고 강화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윤혜준, 2018, 156 쪽).

이후 2018년 10월 영국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인 《연결 사회 : 외로움 대응을 위한 전략》(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외로움 대응 전략의 핵심 원칙에서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조했는데, 정부는 촉매역할을 하는 가운데 지



[그림 3] 시민사회 전략 (앞의 내무부 보고서 9쪽)

정부, 시민사회, 다양한 민간영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특정한 위기 상황과 지점에 집중하고, 외로움이 복잡하고 주관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개인화된 접근과 지역사회 중심의 해결방안 마련의 원칙도 제시하였다.

외로움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와 전략

연결사회를 위한 비전

<연결 사회 : 외로움 대응을 위한 전략>에 의하면 외로움 문제 대응을 위한 영국정부의 비전은 ‘보다 긴밀하고 강하게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것, 가족·친구·지역사회가 외로움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취약한 지점에서 서로를 지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만의 노력

으로 만들 수 없으며, 연결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는 외로움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사회적 처방을 확대함으로써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⁶³⁾

외로움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 세 가지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영국 정부의 외로움 대응전략의 기반이 되었다.

첫째, 외로움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무엇이 효과적인 일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며, 이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한다. 증거 기반(evidence base)을 통해 무엇이 외로움을 야기하고, 외로움의 영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파악하고, 기존에 제시된 근거를 평가하면서 통계청,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세부사항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둘째, 사회적 관계와 외로움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도록 정부가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끌어냄으로써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외로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로움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다수의 정부 정책에서 고려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사회적 웰빙과 회복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여기에는 사회 전반에 대한 편익 제공, 사회적 관계망 고려 등이 포함된다. 셋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숨겨야 하거나 수치심을 갖게 하는 감정이라는 편견과 낙인(stigma)을 줄이고,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집중한다.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대화 촉진을 통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연결망과 웰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세 가지 핵심 전략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사회적 처방을 통해 모든 GP서비스(무

료의료서비스)가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활동과 자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이며, 요리수업, 산책그룹, 미술단체와 같은 다양한 사회활동과 환자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고용주 서약(Employer Pledge): 직장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주 서약’을 발표하였다. 영국 대표적인 마트인 세인스버리스(Sainsbury’s), 영국 적십자사, 내셔널 그리드 등을 포함한 유명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직원의 건강과 사회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였다.
- 영국 국립우체국과의 파트너십: 정부는 로얄메일(Royal Mail)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리버풀, 뉴몰든, 휘트비 지역의 우편 배달부는 평소 배달하는 지역의 소외된 사람들과 대화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다.⁶⁴⁾

외로움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

2018년 종합계획 발표 이후 보조금, 기금 마련, 정책 추진 등을 진행했던 정부는 기업, 자선단체, 공공부문 조직 간 파트너십 구축의 일환으로 ‘외로움 대응 네트워크(Tackling Loneliness Network: TLN)’를 결성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기간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획한 것으로 약 70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하였다. 여기에는 영국예술위원회, 편의점 협회, BBC 방송, 적십자사, 알츠하이머 학회, 외로움종결캠페인(Campaign to End Loneliness), 성소수자 재단(LGBT Foundation), 조 콕스 재단(Jo Cox Foundation), 프리미어리그, 보험회사 등이 포함되었다. 외로움 대응 네트워크의 핵심 조치는 첫째, 사회적 연결에 관심을 가진 기금 제공자를 찾아서 학습과정을 공유하면서 자금조달을 조정

하고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둘째,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만들며, 셋째,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 영향력 있는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팬데믹 전부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고,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혹은 자신감을 잃고 다시 소통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외로움 대응 네트워크는 ‘젊은 층의 외로움 대처’, ‘노인의 외로움 해결’, ‘외로움 해결을 위한 지역 및 장소 기반 접근 방식’, ‘디지털 포용’에 집중하면서 이 작업을 위해 두 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첫째는 외로움 해소를 위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영국 적십자사는 외로움 극복을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한 조직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외로움 대응 챔피언(Tackling Loneliness Champions) 서약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학습나눔, 평가개선, 기술향상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는 개인의 외로움 극복을 지원하는 것이다. 외로움과 관련된 낙인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외로움 대처 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데, 네트워크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외로움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지원을 위한 이정표를 게시함으로써 오랜 기간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주었다. 여기에는 페이스북, 채널 4(Channel4) 및 1티비(iTV)를 포함한 방송사, 영국 청소년단체(UK Youth) 등이 참여하였다.⁶⁵⁾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마음의 소중함을 알아가기 위한 캠페인

2019년부터 영국정부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외로움을 이야기합시다(Let’s Talk Loneliness)’ 캠페인을 통해 외로움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 여기에는 마멀레이드 트러스트(Marmalade Trust), 협동조합 재단(Co-op Foundation), 영국공중보건국, 조 콕스 재단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당시 외로움부 장관이었던

미스 데이비스(Mims Davies)는 “외로움은 영국이 직면한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흡연이나 비만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낄 때에만 서로를 돕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참여하고, 낙인 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외로움의 징후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고립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라고 캠페인의 목표와 방향을 이야기하였다.

‘외로움을 이야기합시다’ 캠페인 기간 외로움 문제를 알리는 단편영화와 광고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외로움인식주간(Loneliness Awareness Week) 동안 로얄 메일, 틱톡(TikTok) 등의 조직과 협력하여 #LetsTalkLoneliness 해시태그를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공유할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하였다. 또한 외로움인식주간의 일환으로 정부는 협동조합 재단과 협력하여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기 위해 커뮤니티 공간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160 만 파운드의 이니셔티브에 매칭 펀딩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⁶⁶⁾ 이후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국가보건서비스와 함께 사람들이 정신 건강과 웰빙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공유할 수 있도록 ‘외로움을 이야기합시다’ 캠페인을 ‘모든 마음은 소중합니다(Better Health: Every Mind Matters)’의 일부로 전환하였다. 외로움과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지원해야 할 이정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⁶⁷⁾

‘모든 마음은 소중합니다’ 캠페인에서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외로움의 징후나 증상은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알리고, 대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까지 제공하였다. 외로움을 느끼고 벗어나고자 할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용적 조언을 제시하였다.

- 사람들과 연락하기
- 그룹 가입하기
- 좋아하는 일을 하기

- 감정을 공유하기
-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봉사 참여
- 가까운 활동에 누군가를 초대하기

또한 25 세 이하 청소년, 성소수자, 55 세 이상의 사람들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 번호, 무료 온라인 채팅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였고, 학생들이 가입 가능한 커뮤니티, 포럼, 헬프라인 등의 정보도 제공하였다.⁶⁸⁾

네 번의 외로움 연례보고서 발간

2020 년 1 월 외로움 연례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영국정부는 2023 년 3 월까 지 총 4 차례 외로움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8 년에 설정하였던 낙인 감소, 지속적 변화 추진, 증거 기반 확대의 세 가지 전략 목표에 근거하여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결성, 캠페인, 자금 전달, 새로운 연구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정부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수록하였다. 2023 년 발간된 『제 4 차 외로움 대응 연례보고서』에서는 ‘이웃 알기 기금(Know Your Neighborhood Fund)’을 통한 자원봉사 기회 확대, 소외된 지역의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최대 3 천만 파운드 모금, 외로움인식주간 기간 ‘모든 마음은 소중합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한 수백만 명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외로움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조사의 연구 프로젝트 의뢰를 통한 외로움에 대한 증거 기반 확장 등의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낙인 줄이기

‘모든 마음은 소중합니다’ 캠페인에서는 특히 18-24 세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누군가를 외로움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것’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외로움 참여 기금은 20 21-2022 년 기간 외로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영국의 청년, 성소수자 등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룹에 총 260,000 파운드 이상의 보조금을 전달하였다.

지속적인 변화 추진

정부는 외로움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 민간, 자선부문에 걸쳐 약 150개 조직들과 함께 외로움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네트워크의 실행계획은 허브 설립을 포함, 정부부처 및 여러 부문 조직의 지속적인 작업에 포함되었다. 또한 보건사회복지부, 교육부, 교통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자원봉사 기회와 사회적 처방을 확대하고 교통기금으로 외로움 극복 기금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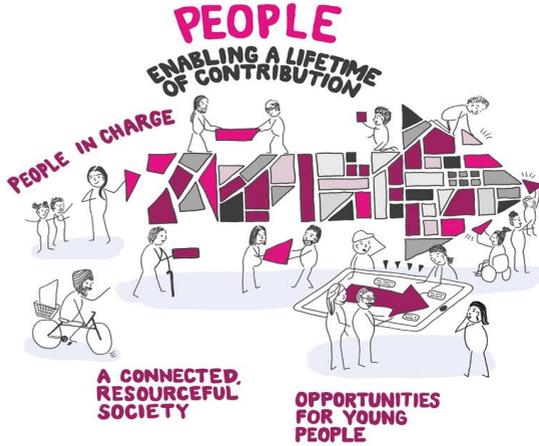
증거기반 확대

2018년 정부는 외로움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관되게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측정방법을 도입하였다. 통계청은 외로움 측정에 대한 포괄적 정보 패키지를 발행하였고, 웰빙을 위한 센터(What Works for Wellbeing Center)는 자선단체와 사회적 기업을 위한 측정도구 사용에 대한 방법론적 지침을 만들어 조직의 개입이 사람들이 외로움을 덜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⁶⁹⁾

외로움 대응을 위한 주체별 역할

정부가 외로움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설정하고 전략 개발과 대책 마련을 주도하였지만, 사실 외로움은 정부, 민간, 사회, 시민 등 모두가 함께 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영국 정부는 모두가 강한 사회적 관계로 연결된 사회를 추구하였는데, 가족, 친구, 지역사회는 서로를 지원하며, 특히 큰 외로움을 겪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취약한 포인트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가치를 중요시하고, 외로움을 낙인이나 부끄러움 없이 인식하고 행동하며, 서로를 조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신인철 외 1명, 2019, 10 쪽).

사람
부문



임무 1. 연결되고 풍부한 사회, 2. 책임감 있는 시민들, 3. 청년들에게 기회를
사례 셀비 트러스트(Selby Trust), 국가 시민 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

지역
사회
부문



임무 4. 임파워먼트, 5. 투자
사례 써포크 도서관(Suffolk Libraries), 그레이터 맨체스터 연합 당국(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사회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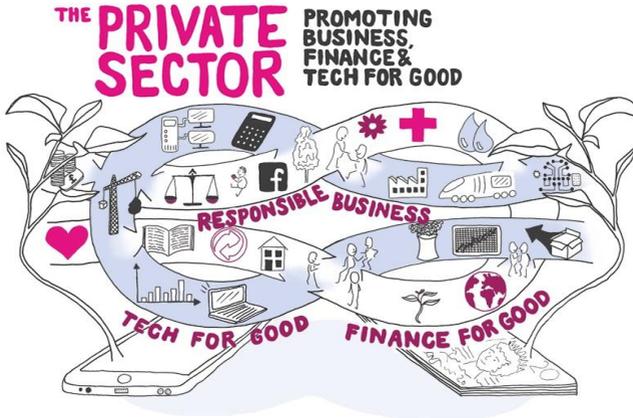
임무

6. 시민사회의 목소리, 7. 사회부문에 대한 자금조달과 자원, 8. 리더십, 지원, 규제, 9. 디지털에 자신 있는 사회부문

사례

복권 기금 (Big Lottery Fund), 가족구하기 (Save the Family)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가정 (Safe Families for Children)

민간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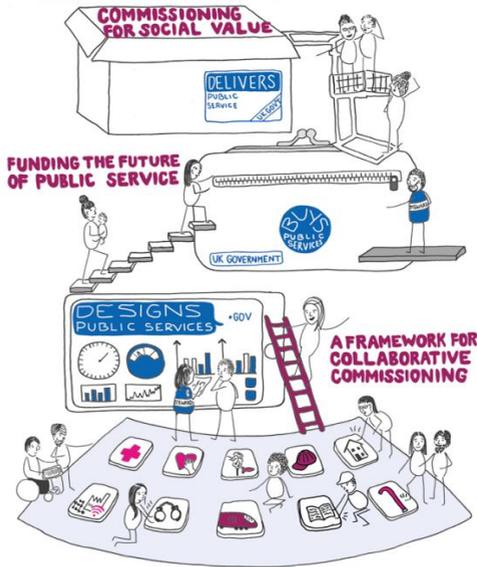
임무

10.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11. 좋은 금융, 12. 기술의 역할

사례

포용적 경제 파트너십 (The Inclusive Economy Partnership)

THE PUBLIC SECTOR ENSURING COLLABORATIVE COMMISSIONING



공공
부문

임무 13. 공동 커미셔닝을 위한 틀 마련, 14. 공공 서비스 미래를 위한 펀딩,
15. 사회적 가치를 위한 커미셔닝

사례 자원봉사,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건강 및 웰빙 연합 (Voluntary, Community and Social Enterprise Health and Wellbeing Alliance)

[표 1] 외로움 대응을 위한 부문별 임무와 사례(앞의 내무부 보고서 30-117쪽 발췌 및 요약)

영국정부는 외로움 문제 해결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지방정부, 보건, 기업, 광범위한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함께 노력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주체별 역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친구, 가족, 커뮤니티:** 자원봉사와 참여를 통해 친구, 이웃, 지역사회 단체를 지원 및 연계
- **정부:** 공유, 학습,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창출을 장려. 리더십과 정책 제공
- **비영리/커뮤니티:** 기술, 훈련, 서비스 전달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회복력 향상에 도움
- **지자체 공공 건강서비스:** 보건 및 웰빙 위원회를 통해 전체적인 건강 접근방식 제공. 사회의 공간 및 교통서비스 제공
- **고용주:** 직원, 고객 및 이들이 제공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확대

[표 2]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행동

(앞의 영국 중앙정부 보고서, 2018, 15쪽. 신인철 외 1명, 2019, 12쪽에서 재인용)

중앙정부는 외로움을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이의제에 대한 국가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좋은 사회 웰빙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와 정보를 개발하고, 외로움 행동 그룹(Loneliness Action Group) 및 회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포함된 정책을 구현하고 관련 학습 및 통찰력을 포착하고 실행함으로써 전략의 효과적인 구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 결정, 그룹 소집, 학습 공유를 통해 사회의 모든 사람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웰빙에 대한 전략계획 및 의사결정에 외로움 문제를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역 주민들이 건강과 웰

빙 및 기타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사회 공간 및 교통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의 외로움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맥락을 조성하였다.

보건 및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적 웰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주 외로움을 느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추천하고,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로움 해결을 위한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전 부문에 걸쳐 연결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업을 포함한 모든 고용주는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사회적 웰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전략을 통해 발표된 ‘고용주 서약’에서는 외로움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법을 제시하였고, 업무 시간 외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고객과 더 넓은 커뮤니티가 사회적 연결을 구축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미 외로움 극복과 사람들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원봉사 및 비영리 부문**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고 통합된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이나 그룹을 고립시킬 수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비스와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외로움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회 각 부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만나는 **가족, 친구, 이웃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로움의 도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답은 가족, 친구 및 공동체가 서로를 포용하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에 열려 있는 단순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친구, 가족, 이웃을 돌보고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기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고립되고 취약한 구성원은 물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람들을 연결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영국 중앙정부, 2018, 15-16 쪽).

외로움 관련 조직, 네트워크, 주요 활동 사례

영국정부가 외로움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외로움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고자 활동했던 단체나 캠페인이 존재하였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이후에는 다수의 시민단체, 기업 등이 외로움 퇴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관련 정부 부문 역시도 외로움 문제 해결에 동참하였다.

조 콕스 외로움 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조 콕스 외로움 위원회는 2016년 조 콕스 위원이 사망하기 직전 설립되었다. 영국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최종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외로움부가 설립된 이후에는 조 콕스 재단을 통해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위원회는 ‘행복한 채팅(Happy to Chat)’ 활동과 ‘#MincePieMoments’ 해시태그 활동을 진행하였다. 행복한 채팅은 2017년 1월 31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빅토리아, 워털루, 킹스크로스과 웨스트민스터 기차역에서 ‘행복한 채팅’ 배지를 나누어주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주위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고, 대화를 통해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돕고자 한 활동이었다.

해시태그 #MincePieMoments 활동은 같은 해 12월 주변에 외로움을 겪

고 있는 친구나 이웃과 민스파이를 함께 나누며 성별, 연령, 인종, 민족과 상관 없이 그들의 외로움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우정의 운동을 전개하여 20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이후 조 콕스 의원이 관심을 가졌던 강력한 커뮤니티, 존중하는 정치,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한 활동은 조 콕스 재단에서 이어졌다. 특히 재단은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켜 개인과 집단의 웰빙, 신뢰, 회복력 및 응집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웨스트 요크셔 지역 내 개인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분열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위대한 모임(Great Get Together), 더 많은 공통점 네트워크(More in Common Network), 연결 연합(Connection Coalition)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⁷⁰⁾

외로움 종결 캠페인(Campaign to End Loneliness)

외로움 종결 캠페인은 외로움부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캠페인으로 외로움부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1년부터 외로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후 노년층의 고독이나 외로움을 다루면서 관련 이슈를 꾸준히 제기하였던 캠페인 사업이었다.

이 캠페인은 외로움을 느낄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고, 서비스 및 활동이 외로움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리고, 외로움 서비스 및 활동을 개발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외로움 종결 캠페인에서는 미디어 활동을 통해 외로움 해결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외로움 교육의 일환으로 연구,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7 년에서 2020 년 기간 영국 4 개 지역 모두에서 외로움 테스트와 학습 영역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외

로움에 대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북아일랜드의 외로움 해결을 위한 정당 간 합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7 년과 2018 년 기간에는 삶에서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념하기 위한 캠페인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외로움 프로젝트>(The Loneliness Project) 영상⁷¹⁾으로 시작하여 <더욱 우리가 되어라>(Be More Us) 영상⁷²⁾을 통한 캠페인으로 확장되었다.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와 조언을 제공하고, 일상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로움에 대한 낙인을 극복하는 데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⁷³⁾

외로움 대응 허브(Tackling Loneliness HUB)

영국 정부가 추진한 외로움 대응 네트워크와 외로움 종결 캠페인이 협력하여 구축한 디지털 커뮤니티이다. 이 허브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지원을 받아 캠페인과 웰빙을 위한 센터 팀이 관리하고 있다.

외로움 대응 허브는 연구, 정책, 실천 전반에 걸쳐 외로움을 다루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과 교환의 디지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부문의 열정적인 외로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로움 전문가가 협력하고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외로움에 대한 증거 기반을 증가시키고,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외로움 전문가를 비롯해 국가 정책 고문, 학술연구원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400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고 한다.⁷⁴⁾

리즈의 행복한 택시(Leeds Happy Cab) 사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는 교통수단이 어떻게 외로움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연구했던 12 개의 프로젝트에 총 500 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 중 리즈 노인 포럼(Leeds Older People's Forum)은 브램리 노인 행동(Bramley Elderly Action)에 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회원들이 예약 가능한 지역사회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택시를 구입하도록 의뢰하였다.

노랑과 붉은 색의 색채 배합이 인상적인 행복한 택시(Happy Cab)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는 길에 대화를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행복 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승객들이 긍정적이고 환영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다. 여정 공유가 권장되면서, 승객들은 근처에 사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미니버스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지역 노인들은 지역사회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팬데믹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행복한 택시를 이용했던 시민 조이스(Joyce)는 “해피캡은 매우 조용하고 편안하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친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잘 걷지 못하기에 이런 종류의 택시에 정말 잘 맞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즐기는 활동을 하는데 편리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⁷⁵⁾

에픽 대드(EPIC Dad) 사례

에픽 대드는 웨스트 서퍽(West Suffolk) 지역의 2017년에 설립된 아버지와 남성 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에픽(EPIC)은 용기를 주고(Encourager), 제공하며(Provider), 교육하며(Instructor), 돌봄을 제공하는(Carer) 사람의 약자이다.⁷⁶⁾ 아버지들을 한데 모아 사교하고, 관계를 구축하며, 육아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아버지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외로움 문제와 관련해서 에픽 대드는 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연계 기금(Local Connections Fund)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다.

혜택을 받은 아빠 중 한 명인 앤디(Andy)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팬데믹 초

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서, “육아에 대한 걱정이 나 질문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정말 외로운 곳이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앤디는 아버지 역할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에픽 대드가 제공하는 5주간의 ‘아빠가 중요하다(Dads Matter)’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다른 아빠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앤디는 “에픽 대드에 합류하기 전에는 아빠로서 겪는 어려움에 정말 외로웠지만,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인터뷰하였다.⁷⁷⁾

이웃 알기 기금(Know Your Neighborhood) 사례

2023년 1월 정부는 전국 복권 커뮤니티 기금(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에서 최대 3천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받아 잉글랜드 전역의 27개 취약 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최대 3천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 패키지인 이웃 알기(Know Your Neighborhood) 기금을 출범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울버햄프턴, 사우스 타인사이드, 킹스턴 어폰 힐, 블랙폴 등 영국의 27개 취약 지역의 만성적 외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무엇이 지역사회의 웰빙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박물관, 도서관, 지역사회 합창단, 음악과 드라마 클럽과 같은 자원봉사 예술단체에서 자원봉사 기회를 창출하며,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경쟁을 거쳐 총 1,900 만 파운드의 정부 자금 중 1,400 만 파운드를 영국 커뮤니티 재단과 9개 지역의 지역 커뮤니티 재단 컨소시엄에 제공하였는데, 이 기금은 이전에 자원봉사를 할 기회가 없었거나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웰빙, 기술, 자신감 및 사회적 연결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풍부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되었다.

나머지 500만 파운드의 정부 자금은 27개 지역에서 예술, 문화 및 유산 활동에 대한 기존 제안을 확대하여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투자되었다. 이 기금은 영국예술위원회와 국립복권유산기금이 히스토리 잉글랜드(Historic England)와 협력하여 제공하였다.

이웃 알기 기금은 2025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이 프로그램의 주요 초점은 소외된 지역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습을 생성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⁸⁾

연결되고 연대하며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되새기기

1 인구가 증가하고, 혼자 놀기가 익숙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은 당연히 느끼는 감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는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을 씌우기도 한다. 그런데 영국 조콕스 위원회의 연구에 의하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 개비, 술 6 잔을 마시는 것만큼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외로움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다수의 학자와 컬럼니스트는 외로움을 질병, 전염병으로 규정하였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의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연결하고, 연계하고, 다리 놓음으로 형성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역시 축적될 수 없게 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은 사람들 간 연결고리를 더 약하게 만들거나 혹은 끊어지게 만들었다.

영국정부의 외로움부 창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결된 사회’를 기치로 하여, 보다 긴밀하고 강하게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외로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했고, 자원봉사를 활용하

여 사회에 더 많이 참여할 기회도 창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재단, 기업 등은 외로움 해결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미시적인 수준에서도 개개인 한 명까지 제외되지 않도록 직통전화, 온라인 서비스 등도 개설하였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외로움 대응의 주도하였지만,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환경식품농림부, 교육부, 교통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도 외로움 대응에 적극 참여하였다. 보건, 복지, 환경, 교육, 노동 등 다수의 분야에서 ‘외로움’과 연결하여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외로움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인가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서고,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외로움을 국가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종 시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외로움전담관’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비공개 고민해결 핫라인을 개설하였다. 또한 심리 진단, 상담, 치유를 연계하여 직원의 심리 케어를 강화하고, 심리 상담도 확대 운영한다고 한다.

국가 차원에서 외로움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다룰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가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경우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이 나보다 훨씬 좋아 보였을 때, 즉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때이다. 즉 외로움 문제는 실제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간주한다면, 외로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를 비롯한 근본적 문제부터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피상적이고 생색내기식 정책이 아닌 외로움의 근본부터 돌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



시민사회 : 연대와 호혜의 공동체

공익활동 : 봉사하고 참여하고 대안을 만들고 저항하는

시민사회 단체 ; 결사체 민주주의

정부의 협치(거버넌스) : 광범위한 참여구조 설계와 지원

시민의 삶, 풍요로운 일상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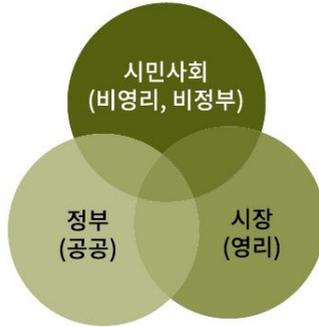
세 개의 사례를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정신은 속도를 늦추어 어디로 가는지 를 함께 정하는 동안 손잡아 발을 맞춰 걷고, 누구 하나라도 우리의 뒤에 남겨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렇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모두를 위해 모두가 참여하고 합의하는 대화와 실천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의 사례를 통해 속도보다 방향이, 방향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는 사회에서의 공통된 사회구조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협치(거버넌스)를 정리한다.

시민사회 : 연대와 호혜의 공동체

독일의 시민들은 노동 4.0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론장을 형성했다. 시간과 노력 그에 따른 비용을 내놓더라도, 미래를 다른 사람의 손에 놓아두었다가 끝에 가서 비난하기 보다는 함께 만들어가고 기꺼이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이다. 그들은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학습과 실험의 장을 이어간다. 네덜란드에서 젠더정의를 위해 대화하고, 소년과 남성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젠더정의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활동가는 자신의 활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모두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방침은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다. 그렇기에 그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이 있다. 영국의 시민들은 외로움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줄이고 인식을 개선하려는 캠페인을 벌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지역에 공간을 만들고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그들의 이웃을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들의 이런 노력은 ‘경제적 인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나쁜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이로울 행동, 선함이나 훌륭함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으로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간성’의 가장 좋은 면을 발현하는 영역이 시민사회라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시민사

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그림 4] 현대 사회의 세 영역 (노닐다 짱구패, 2016, 96쪽)

현대사회를 크게 정부(공공/제1섹터), 시장(영리/제2섹터), 시민사회(비정부·비영리/제3섹터)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 독자적인 원리와 메커니즘을 가진 것으로 본다. 시민사회는 시민 개인(복수성)의 공적 자유를 실현하고(자율성·독립성·공공성)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평등성) 자발적 결사체를 결성하여(연대성) 정치·경제·행정·교육·환경·언론·문화·예술·소수자 보호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다양성) 시민의 덕성을 발현하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해된다.⁷⁹⁾

따름이를 타면서 동료시민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나 내 삶의 질이 2%쯤 올라간 것 같다는 느낌적 느낌이 든 이유를 알 것 같다.

전쟁 같은 하루를 끝내고 우리는 돌아가 쉴 곳이 필요하다. 따뜻하게 위로 받고 피로를 풀고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라고 선량

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호의를 받게 되면 선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해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생생히 전해진다. 그러니 돕거나 돌보거나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다. 하여 흔히 시민사회를 연대와 호혜의 공동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시장과 시민사회를 어떻게 구분할까? 우리의 일상에서 경쟁적이거나 수직적이거나 손익을 따지는 관계가 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나 협력하면서 양보하거나 헌신하더라도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관계도 있다. 모두에게 좋은 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남의 불행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다시 만날 일이 없어도,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런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에 들어서면 우리의 선량함이 불쑥 튀어나오고, 훌륭함이 교환된다. 이런 시민사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 물론 나무랄 것 하나 없는 이상적인 일들만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은 있더라도,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안전망 하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사람다움’을 지킬 수 있는 품위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공익활동 : 봉사하고 참여하고 대안을 만들고 저항하는

노동 4.0 사회적 대화, 이만시페이터, 외로움 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동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마련한 대화의 장에 초대되어 참여하는 것만으로 공익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길가에 세워진 따릉이를 타는 것만으로도 공익활동이라 말할 수 있을까?

공익활동은 생각보다 넓다. 공익활동을 분류한 연구⁸⁰⁾는 유형분류 기준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시민사회가 다른 사회영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 두 가지는 ① 다른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관여’, ② 분리된 고유한 영역이라는 ‘독립’이고, 입장에 따라 다른 영역과 협력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③ 다른 영역

과 조화를 이루면서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에 주목하는 입장은 다른 영역에서 결손된 부분을 사회적으로 보완하는 역할로, ④ 다른 영역과 갈등적 관계를 가지고 사회변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갈등’에 주목하는 입장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적인 질서를 제시하는 역할로 나뉜다. 이에 기초하여 4 개의 유형을 제시한다.

시민사회의 ‘역할’

		갈등	기능
시민사회가 다른 영역과 맺는 ‘관계’	관여	관여-갈등적 (대항)	관여-기능적 (해결)
	독립	독립-갈등적 (자율)	독립-기능적 (자선)

[표 3] 시민사회의 관계와 역할에 따른 유형분류 틀(조철민, 2023, 14쪽)

첫 번째 유형 ‘관여-갈등적’ 부문은 ‘대항’이라는 주제어로 표상한다.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혹은 불의에 맞서기 위해 펼쳐온 대항의 집합행동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 ‘독립-갈등적’ 부문은 ‘자율’이라는 주제어로 표상한다. 시민사회를 방어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대안적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생산공동체나 자원순환, 느린 삶 등의 사례를 든다. 세 번째 유형 ‘독립-기능적’ 부문은 ‘자선’이라는 주제어로 표상한다.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비영리영역이나 자원봉사를 사례로 든다. 네 번째 유형 ‘관여-기능적’ 부문은 ‘해결’이라는 주제어로 표상한다. 정부나 시장이 다루지 못하거나 시민사회가 더 잘 다룰 수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한다. 거버넌스,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을 사례로 들고 있다(조철민, 2023, 13~18 쪽).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정책결정을 논의하는 구조에 참여하고, 젠더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활동을 하고, 따릉이를 타는

모든 행동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를 만드는 모두를 위한 공익활동이다. 자선을 베풀고, 봉사하고, 시위에 나서고 저항하는 다른 모든 공익활동들처럼.

그러므로 사소하거나 단순히 나를 위해 행동하더라도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다. 더 다양한 공익활동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그만큼 나아질 것이다. 공익활동을 알고 그런 일을 펼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자신의 삶에서 공익활동을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시민이 되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시민사회 단체 ; 결사체 민주주의

노동 4.0 사회적 대화에서 참가한 단위는 독일상공회의소, 독일무역협회, 독일산업연합회, 독일연방중소기업협회, 연방고용주협회, 청년기업가협회, 독일노동조합연맹(DGB), 철도운송연맹, 독일산업연맹, 프리랜서직업협회, 연방노동변호사협회, 연방고용청, 공무원협회, 독일지방의회, 독일도시협회, 독일개신교, 독일(천주교)주교위원회, 사회민주당(SPD), 기타 전문가 그룹, 연구기관, 각종 위원회 등이다. 연합, 협회, 연맹 등의 명칭을 볼 때 거기에 속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얼마나 많으며 촘촘할지 추측이 가능하다.

이만시페이터는 정책에 자문하기도 하고, 단체들과 전문가와 활동가와 시민을 연결하고, 소년과 남성에게 폭 넓게 다가간다. 그리고 네덜란드 내의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97 개국의 1100 여 개의 시민단체들과 연결되어 있다.

영국 외로움부는 자선단체, 마멀레이드 트러스트, 협동조합 재단, LGBT 재단, 조 콕스 재단, 요리수업, 산책그룹, 미술단체 같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들과 네트워크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파트너였다. 그 외 영국예술위원회, 편의점협회, BBC 방송, 적십자사, 알츠하이머 학회, 프리미어리그, 보험회사, 로얄 메일, 틱톡 등의 조직이 참여했다. 특히 외로움부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외로움

종결 캠페인이 눈길을 끈다.

저 옛날 1831년, 《미국의 민주주의》로 유명한 토크빌이 미국 출장에서 만난 미국의 민주주의는 프랑스 대혁명(1789년) 이후 거듭되는 혁명과 반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탄 난 프랑스와는 달랐다. 그가 경탄해마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고국은 시민혁명 뒤에 쿠데타나 왕정, 독재가 거듭되던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원동력은 다양한 결사체들이 촘촘하게 사회에서 한 영역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국가와 개인 사이에 다양하고 다원화된 결사체들이 국가의 비대화와 독재를 방어하고, 결사체 내에서 개인이 교육받고 경험함으로써 민주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결사체(association)란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협동적으로 활동하는 집단으로, 국가와 개인 사이에 결사체가 풍부해져야 한다는 입장이 결사체 민주주의다(노날다 짱구패, 2016, 95~96 쪽).

다양한 결사체들이 많이 있지만, 시민 개인이 공익활동을 펼치고자 할 때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이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영역·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 정부나 시장과는 다른 원리로 움직이고, 그들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시민사회에서 성장해야 한다. 앞선 사례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에서 동등한 지위의 파트너로 인정되고 있으며, 강한 시민사회가 있을 때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신뢰가 깔려있다.

그리하여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각국은 저마다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책을 가지고 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시민사회 단체의 재원은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내놓는 회비, △그 활동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의 기부, △정부나 시장이 못하거나 혹은 시민사회가 더 잘할 수 있는 사업 시행에 대한 정부 지원금, △단체 존립을 위한 운영비·인건비 등 필요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구별할 수 있다. 회비는 작고 기부는 없고, 시민사회 단체들

은 대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덕분에 단체가 사라져야 할 비운을 맞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사업비 지원금을 늘리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개 정부나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이만시페이터의 엔스 씨가 말한 것처럼 단체의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단체의 어려운 사정은 개선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금에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산정하거나, 단체 자체에 운영비/인건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독일, 영국, 미국은 시민사회 단체들에 운영비/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을 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게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재원에 의존할수록 시민사회 단체의 고유성을 잃게 될 위험이 제기된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거나 공동재산을 만들기도 한다. 영국 외로움부의 경우 보조금은 물론 사회적 연결에 관심을 가진 기금 제공자를 찾아서 자금조달을 조정하는 조치까지를 실행한다는 것을 보았다. 이만시페이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학교, 회사, 기타 조직이 참여하면서 그 비용을 단체에 지불하는 방식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회가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개방성이 엿보인다. 특히 기업이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간접적 방식과 더불어 스스로 공공성과 시민성을 높이는 내부 조직문화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부·시민사회와 직접 연결되고 협력하는 것이 거버넌스로 확립되어 가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비, 기부금, 지원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정부도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분담하는 것이 기꺼운 의무일 것이다.

정부의 협치(거버넌스) : 광범위한 참여구조 설계와 지원

무엇보다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과 수용은 정부 영역에서 중요하다. 거버넌스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시민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생각해야 한다. 앞의 사례들에서 정부가 사회 각계 계층과 소통하고 지원하기 위해 한 노력들은 모두 정부의 성공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조건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영국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의 제목이 《시민사회 전략: 모두를 위한 미래 만들기》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영국 정부는 나서서 시민사회 내 다양한 영역의 연계와 사회적 가치 구축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사회의 세 영역과 사람과 지역이 포함된 그림이 영국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서 ‘파트너십과 협력’을 핵심원칙으로 정부가 촉매하고, 새로운 기술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를 지탱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연결하고 강화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영국 외로움부는 외로움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공공 서비스는 물론 시민사회, 지역사회, 시민 개인과 연결되고 각각의 임무를 주고 함께 협력하자고 한다. 특히나 영리 영역에까지 연결해내면서 임무를 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외로움 대응 네트워크에 약 150 개의 조직이 함께 했다는 것이나, 주무부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로 확대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영국 정부의 기조 ‘파트너십과 협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독일의 노동 4.0 사례에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 학습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동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실행단계에서는 수용성, 정당성과 더불어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특히 주관부서인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방침은 큰 영감을 준다. 일반 시민들이 논의할 주제에 대해 잘 이해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북을 제공하거나 영화제를 통해 토론을 이끌어가는 등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하나로 묶고 평가하고 심화하고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만이 유일한 길이기에 정부는 좋은 합의, 사회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하는 모습은 정부와 관료의 목표와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독일 정부의 이런 방침은 시장영역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독일에서 ‘연대, 참여 및 공동결정’이 좋은 기업 문화의 핵심 원칙이 되고, 이것이 경제적 성공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기업이 생산성이 더 높고 더 혁신적이며 성별 임금 격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평가가 그러하다.

결국 사회의 세 영역이 선순환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정부가 토대를 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삶, 풍요로운 일상을 위하여

반짝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일상에서 본 일이 있는가. 지친 일상이 거칠고 고돼서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찾아가는—그것이 경관이 되었던, 그곳에서의 자신이 되었던— 여행이 큰 유행이 된 것 같다. 하지만 잠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돌아온 일상이 순탄해지지 않는다. 짧은 여행은 일상을 잠깐 버틸 힘을 주는 데 그친다. 다시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일상에서 멀어지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나라

의 자살률 1위가 몇 년간 지속되었다는 통계를 들지 않아도, ‘전쟁 같은 일상’이라는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을 사람이 많을 것 같지 않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걸까?

앞의 사례들은 그 희망이란 누가 주거나, 쉽게 짚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장 또는 노동자이자 소비자이며 외로운 개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가족이거나 친구이다. 또한 우리는 유권자이자 주권을 가진 국민이고 지역사회의 주민이며 관료가 될 수도 있지만 정책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기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관계를 맺고 역할을 해나가며 마침내 성숙한 시민이 되어 간다.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하고, 쇼핑을 하는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이, 더불어 다른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데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할만한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다른 삶의 방식을 실천해볼 수 있다. 불의에 항거하거나,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서 거리에 나설 수 있다.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이로운 공익활동은 조금 더 생각하거나 알아보고 나 참여하는 것으로 쉽게 할 수 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보탬이 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상의 변화를 만들 것이다. 팍팍한 삶을 조금은 더 살만하게, 혹은 아주 가끔이라도 아름답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주석



1장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 1)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울시설공단 누리집,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traffic/bikeseoul.jsp (2023.10.25.)
- 2)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유명미 역, 갈라파고스, 2011. 참조
- 3) 장재민 외 2명,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7권 제4호, 2016, 78쪽
- 4) 공유경제란 이미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사람이 나눠 써서 자원활용을 극대화하고, 싼값에 이용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빈 방을 대여해주는 걸로 시작한 에어비앤비나, 차량 동승을 연결할 수 있도록 시작한 우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5) 이현승 외 2인, <위기의 따릉이① 달릴수록 적자나는 서울 마스코트... 13년 만에 '요금 인상' 카드 만지작> 조선비즈, 2023.02.03.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2/03/EE3656J6QNEC3EURB6JYJY65YA/ (2023.10.30.)
- 6) 이현승 외 2인, <위기의 따릉이② 보조금 의존한 코펜하겐 공공자전거 '파산' ... 뉴욕·파리, 민간기업 손 잡고 광고·후원 유치> 조선비즈, 2023.02.09.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2/09/5UOAMZXOBVGNRAS5ZLLHC5IVMI/ (2023.10.30.)
- 7) 이현승 외 2인, <위기의 따릉이③ 이용자 참여시켜 자전거 재배치 비용 줄여야... 기업 광고·후원 유치로 돌파구> 조선비즈, 2023. 02.13.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2/13/W4YXLZJMHNAOPPHL3FZ5ZIN3SM/ (2023.10.30.)
- 8) 이지성,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6년 5개월 만에 누적 이용 1억건 돌파> 서울경제, 2022.04.27. <http://www.sedaily.com/NewsView/264UUETKRC> (2023.10.30.)
- 9) 이 기사는 서울시청에서 따릉이가 사라진 것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100억 적자', '일본 부품' 등 부정적 기사가 계속 나오는 흐름을 짚어, 따릉이의 민영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 10) 임동현, <서울시청에서 사라진 따릉이, 혹시 없어지나?> 시사주간, 2021.05.06. <https://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80> (2023.10.30.)

- 11) 정재민, <서울시 '따릉이 소동' ...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오마이뉴스, 2021.10.2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290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3.10.30.)
- 12) 서울환경운동연합 · 녹색교통운동 · 전국자전거단체네트워크, 성명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공공자전거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 2021.10.22.
- 13) 강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기업광고 입찰 시작... '공공성' 논란은?> 경향신문, 2022.09.14.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9141135001#c2b> (2023.10.30.)
- 14) 이상: bicycle sharing system,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Bicycle-sharing_system (2023.10.30.)
- 15) 고무성,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뉴시스, 2010.10.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3512701?sid=102> (2023.10.30.)
- 16) 백주현 외 2명, <고양시 공공자전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2019, 요약 i ~ v
- 17) 김광일, <서울시 자전거 정책의 평가와 대안> (사)녹색교통운동 이슈리포트, 2020, 1~4쪽
- 18) 홍석기 외 6명, <시민의 자전거 생활문화 공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총론
- 19) 울리히 벡, 《위험사회》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25쪽

2장 미래의 삶 대비 사례 : 독일 노동 4.0

- 20) '녹서'는 정책을 논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초 자료이며, '백서'는 정책이나 특정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의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자료이다.
- 21) 이와 같은 사회적 신뢰 형성에 대한 문화적 기반으로는 시간과 자본, 노력을 투자해서 불확실성을 탈피하고 정확성과 완전성을 추구하려는 장기적 성과 지향, 미래지향적 가치 중시하는 문화, 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소통문화, 합의와 공동책임, 공익을 지향하는 상호존중의 문화가 있다.(이종관 외 2명, <독일 사회의 신뢰 제고 사례> 2017 중장기전략 정책세미나, 2017.2.9.)
- 22)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와 '경영이사회(Vorstand)'로 나뉜다. 감독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뽑힌 주주를 대표하는 사측 인사와 직장협의회에서 뽑힌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며, 경영이사회는 사내 이사만으로 구성된다.(독일 감독이사회,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2%AC%E%9A%8C%EC%A0%81%20%EC%8B%9C%EC%9E%A5%EA%B2%BD%EC%A0%9C> (2023.11.2.))
- 23) 독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신 '산업 4.0'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산업의 발전단계를 '단절적이고 파괴적인 현상(Revolution)'으로 보지 않고,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Evolution)'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 4.0은 제조업 중심의 개념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보다 훨씬 포괄적 개념'이다. (이문호, <왜 우리에게 '노동4.0'이 없는가? - 독일 '산업4.0'이 주는 시사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2.21.) http://www.ksli.org/bbs/board.php?bo_table=B08&wr_id=81 (2023.10.30.)

- 24) 이 전략은 기후, 에너지, 건강, 운송, 안전, 커뮤니케이션을 5대 혁신분야로 삼았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기술차원의 IT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에 기초한 사회전반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시스템을 의미한다.(장준호,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본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 4.0, 글로벌정치연구, 11-2호, 2018.12., 58쪽)
- 25) 2차 플랫폼 산업 4.0은 전체를 포괄하는 지도부그룹, 실행을 담당하는 조정그룹과 전략그룹으로 구성된다. 연방경제부 장관, 연방교육연구부 장관, 산업계 및 산업계협회 대표, 금속노조, 프라운호퍼연구소가 공동대표를 맡았다.(남유선, 김인숙, <독일의 개방형 의사소통 시스템 '플랫폼' -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제70집, 2015.12., 55-56쪽)
- 26) <Grünbuch Arbeiten 4.0>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15.4.
- 27) 독일의 인쿠르트, 인맥관리 네트워크 사이트
- 28) 백서의 '대화 프로세스(Der Dialogprozess)'에는 '전문 대화' 영역에 배치했으나, 여기서는 전문가 대화보다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물 성격을 중시하여 연구 프로젝트 분야에 배치했다.
- 29) <Weissbuch Arbeiten 4.0>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독일연방노동사회부), 2016.11.
- 30) '민주적 참여' 또는 '민주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공동결정권을 넘어, 전략적 개발이나 업무 조직을 구성하는 데까지 직원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Grünbuch> 71쪽)
- 31) 독일상공회소, 독일무역협회, 독일산업연합회, 독일연방중소기업협회, 보험회사고용주협회, 화학회사고용주협회, 연방고용주협회, 청년기업가협회, 독일기계-플랜트엔지니어링협회, 독일노동조합연맹(DGB), 철도운송연맹, 사회보장연맹, 독일산업연맹, 프리랜서직업협회, 브레멘직장협의회, 연방노동변호사협회, 연방인사관리자협회, 연방고용청, 공무원협회, 독일지방의회, 독일도시협회, 독일개신교, 독일(천주교)주교위원회, 사회민주당(SPD) 등. BMAS 홈페이지, <https://www.bmas.de/DE/Arbeit/Digitalisierung-der-Arbeitswelt/Arbeiten-vier-null/fachdialog.html> (2023.10.25.)
- 32) DGB, <Arbeiten 4.0: Der Mensch im Mittelpunkt> 2015.11.17.
- 33) BDI, 2015.11.24.
- 34) BDA, <Arbeitswelt 4.0 - Chancen nutzen, Herausforderungen meistern> 2015.11.
- 35) 전문가로 참여한 대상은 기업 CEO를 비롯한 임원진, 노조 조합원, 행정 관료, 엔지니어, 철학자, 문학가, 과학자, 교육자, 노인간호학교 교장, 유튜버, 블로거, 엔지니어, 언론인 등으로 다양했다.
- 36) <https://www.bmas.de/DE/Arbeit/Digitalisierung-der-Arbeitswelt/Arbeiten-vier-null/filmfestival-futurale.html> (2023.10.28.)
- 37) <https://www.cinemayence.de/futurale/Futurale.html> (2023.10.28.)
- 38) Netzpiloten Magazin 홈페이지, <Nach einem Jahr Filmfestival Futurale: Was haben wir über die Zukunft der Arbeit g elernt?> <https://www.netzpiloten.de/filmfestival-futurale-zukunft-arbeit-viernull/> (2023.10.29.)

- 39) BMAS 홈페이지, 워크숍 섹터에 7회 논의 내용(Workshop-Dokumentationen)이 각각 정리되어 있다. <https://www.bmas.de/DE/Arbeit/Digitalisierung-der-Arbeitswelt/Arbeiten-vier-null/fachdialog.html> (2023.11.1.)
- 40) Deutscher Bundestag(독일 연방의회), Aktueller Begriff - Arbeiten 4.0 - Arbeitswelt im Wandel Grünbuch und Dialogprozess, 2016.2.16.
- 41) BMAS, <Wertewelten Arbeiten 4.0> 2016.3.
- 42) 이러한 200명의 그룹은 대표표본인 재직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재직자를 표본으로 했다.
- 43) 정부 규제나 노조 없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체제로, 이윤 추구를 위해 시장경제의 자유를 터보 엔진처럼 밀어붙이는 자본주의를 지칭한다.
- 44) Andrea Nahles, <Werkheft 04 - Sozialstaat im Wandel> BMAS, 2017.8. 3쪽.
- 45) DIW BERLIN 홈페이지, https://www.diw.de/de/diw_01.c.537062.de/veranstaltungen/arbeit_4_0_bild_spot_gender.html (2023.11.13.)
- 46) VGSD(독일자영업자협회) 홈페이지, <https://www.vgsd.de/abschlusskonferenz-arbeiten-4-0-mit-vorstellung-des-weissbuchs-am-29-11/> (2023.11.13.)
- 47) Kerstin Schreck, <Arbeit 4.0 - Qualifizierung ist der Schlüssel für die Arbeit der Zukunft> HAUFE ACADEMIE, 2017.8.29. <https://www.haufe-akademie.de/perspektiven/arbeit-4null/> (2023.11.15.)
- 48) SPD(사민당) 홈페이지, <https://annakoebberling.de/dialogprozess-der-landesregierung-zu-arbeit-4-0-in-koblenz/> (2023.11.15.)
- 49) <https://www.iwa.nrw.de/gemeinsame-erklaerung-der-initiative-wirtschaft-arbeit-40> (2023.11.16.)

3장 젠더정의 확산 사례 : 이만시페이터

- 50) 백래시(backlash)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페미니즘이나 진보 운동과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대중적 반발을 의미하는 사회학적 용어. 원래 '반발'이라는 뜻의 어휘였으나 1991년 출판된 미국의 저널리스트 수전 팔루디의 <백래시: 미국 여성에 대한 선전포고 없는 전쟁>에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대중적 역풍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페미니즘뿐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계층의 반발 양상을 의미하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 (백래시, Daum 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b1929> (2023.11.20.))
- 51)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s://ncsd.go.kr/unsdgs?content=1> (2023.11.13.)
- 52) K-SDGs,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s://ncsd.go.kr/unsdgs?content=1> (2023.11.13.)

- 53) 이기선, <역사속 오늘리뷰, 5월 17일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 발생> 파이낸셜리뷰, 2023.05.17, <http://blog.naver.com/finreview4120/223104896808> (2023.11.13.)
- 54) 이영란, <윤석열 "여가부폐지" '이대남' 공략에 당 안팎 서 "젠더 갈라치기" 반발 기류> 시민일보, 2022.1.10. <https://m.siminii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75967245216> (2023.11.13.)
- 55) MenEngage, 맨엔게이지 얼라이언스, <https://menengage.org> (2023.11.13.)
- 56) IMAGINE(Inspiring Male Action on Gender equality IN Europe). Emancipator, <https://www.emancipator.nl/en/portfolio-item/imagine-toolkit-2/> (2023.11.13.)
- 57) 베이징행동강령, 네이버블로그 JHSUSTAIN, 개발협력과 젠더(1) 베이징 행동강령 그 후, <https://blog.naver.com/jhsustain/222264215950> (2023.11.13.)
- 58) 이성덕, <이성덕 인권칼럼. 나도 그렇다 Me, Too> 시흥저널, 2020.12.3, <http://www.sh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97> (2023.11.13.)

4장 삶의 질 개선 사례 : 영국 외로움부

- 59) 신인철 외 1명. <외로움은 개인만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사회적 관계 고려 공동체 지원 다각화 필요> 서울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 5쪽.
- 60) 최현영 외 1명. <'홀로있음'에서 고독과 외로움 간의 차이 탐색> 청소년학연구, 23권 12호, 2016.
- 61) 윤혜준, <'외로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접근과 정책적 함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글로벌 리포트, 21권 4호, 2018, 154쪽.
- 62) 내무부(Home Office), <시민사회 전략 : 모두를 위한 미래 만들기(Civil Society Strategy: Building a future that works for everyone)> 내무부, 영국, 2018.
- 63) 영국 중앙정부(HM Government),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201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fb66cf98fa8f54aafb3c333/6.4882_DCMS_Loneliness_Strategy_web_Update_V2.pdf (2023.11.20.)
- 64) 영국 중앙정부(HM Government), 2018, 10-12쪽.
- 65) 외로움 대응 네트워크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merging-together-the-tackling-loneliness-network-action-plan/emerging-together-the-tackling-loneliness-network-action-plan> (2023.11.20.)
- 66)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보도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news/lets-talk-loneliness-campaign-launched-to-tackle-stigma-of-feeling-alone> (2023.11.18.)
- 67) 제4차 외로움 대응 연례보고서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neliness-annual-report-the-fourth-year/tackling-loneliness-annual-report-march-2023-the-fourth-year> (2023.11.20.)

0.)

- 68) '모든 마음은 소중합니다' 캠페인 <https://www.nhs.uk/every-mind-matters/lifes-challenges/loneliness/#more%20help> (2023.11.20.)
- 69) 제4차 외로움 대응 연례보고서, 앞의 사이트 (2023.11.20.)
- 70) 조 콕스 재단 <https://www.jocoxfoundation.org/> (2023.12.01.)
- 71) 외로움 프로젝트 https://youtu.be/IYc85A8f2CM?si=8ls1o990hFD_BuwN (2023.11.30.)
- 72) 더욱 우리가 되어라 <https://youtu.be/Pm12mTIUJss?si=I0MpNSknjukaKpRD> (2023.11.30.)
- 73) 외로움 종결 캠페인 <https://www.campaigntoendloneliness.org/> (2023.11.29.)
- 74) 외로움 대응 허브 <https://tacklinglonelinesshub.org/> (2023.11.24.)
- 75) 제4차 외로움 대응 연례보고서, 앞의 사이트 (2023.11.22.)
- 76) 에픽 대드 <https://www.epicdad.co.uk/> (2023.11.24.)
- 77) 제3차 외로움대응 연례보고서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neliness-annual-report-the-third-year/tackling-loneliness-annual-report-february-2022-the-third-year>(2023.11.24.)
- 78) 이웃 알기 기금 <https://www.gov.uk/guidance/about-the-know-your-neighbourhood-fund> (2023.12.01.)

5장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

- 79) 노닐다 짱구패,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산다》 노닐다, 2016, 95~96쪽
- 80) 조철민, <시민사회 유형론 :공익활동 담론과 실천의 갈래> 한국NGO학회, NGO연구 제18권 제1호, 2023
- 81) 나태주, '풀꽃1', '풀꽃2', 《풀꽃》, 지혜, 2021, 14~15쪽